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1 <책거리> 장지에 채색 | 130.3×162cm | 2010
- 2 <외눈박이 나라의 두눈박이> 장지에 채색 | 120×188cm | 2018
- **3** <武陵桃源(무릉도원)> 장지에 채색 | 116.5×91cm | 2010



이달의 표지 작가 **곽수연** 

2016년 서울예술치유허브갤러리 맺음 후원 공모 선정 전시 작가. 12지신과 색동산수'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열두 띠와 색동으로 만들어진 유토피아라는 공간을 설정하여 전통회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전시를 진행했다. 한성대와 동 대학원, 동국대 대학원에서한국화를 전공했으며, 동물을 주제로 한 개인전과 여러 차례의 그룹전을 통해 관객과 만났다. 사람과 가깝게 생활하는 반려동물을 매개로 인간과 자연, 현 사회를 새롭게 읽으며전통 채색작업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화 작가이다. 1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LG유플러스본사 용산 사옥에서 개인전 <행복 플러스 2018 展>을 연다.



표지 작품 <同苦同樂(동고동락)> 장지에 채색 | 72.7×60.6cm | 2014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어느덧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버린 반려동물, 개를 작품의 주제로 삼은 이유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였다. 나와 자연, 또 사회를 공부하려는 마음이 사람과 제일 가까운 동물인 개에 관한 작업으로 이어졌다. 우리 사회에서 개는 사람으로 비유되거나 천 대받기도 하고, 또 사람과 비슷한 대우를 받거나 동물이 인간화되는 재미있는 일들도 생겨난다. 이런 부분들은 나의 그림에서 해학과 풍자 적인 요소로 표현된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더 말할 필요도 없는 동물들, 또 길들여져 인간화된 동물들은 이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나는 이 공부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동물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들을 소유하면서 일어나는 생활 속 이야기들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본다. 이는 현 사회를 보는 다른 시각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허용하고 실생활에서 자연에 대해 공부한다. 개는 사람보다 짧은 수명으로 생명에 대한 교훈을 주고, 어린아이같이 티 없는 순수함으로 행복감을 전한다. 그러하기에 동물과 같이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현 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인성을 평가하는 계기도 된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물질은 풍요로워진 반면에, 인간은 자기중심적이 되고 인간의 마음에는 고갈된 부분이 생겼다. 그런 이유로 집 안에서 식물이나 동물을 키워 순수한 자연을 가까이 하고 인간 본연의 성정(性情)을 되찾으려 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한때 개를 애완동물(愛玩動物)로 불렀다. 동물은 우리 주변에 있는 또 하나의 자연이며 인간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대상으로 사육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사물은 인간을 위해 있어야 하고 이를 인간이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며 느끼는 인간적인 부분과 지혜를 자연에서 공부하고자 한다. 그러한 관심으로 개를 그리게 됐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개를 애완동물이 아닌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인식하고,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해 반려동물(伴侶動物)이라 부른다. 이는 인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동물은 자연의 일부이고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생명체이기에 관심이 지나쳐 사람과의 관계보다 동물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면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는 자연의 경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개가 사람을 무는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존중이란 어쩌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게아닐까 싶다. 동물을 자연의 일부분인 애완으로 본다면 동물을 지나치게 소유하는 일도, 사람을 무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즉 동물을 애완하는 일이다.

나는 화폭을 통해 인간화된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재설정한다. 조선시대 영모화에 많이 쓰인 구륵전채법(鉤勒填彩法)을 활용하고, 옛 민화의 이미지를 포함시켜 3합 장지나 삼베, 비단 바탕 위에 아교(阿廖)를 사용해 석채 안료로 전통 진채(眞彩) 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의 미감과 어울리는 다양한 색상의 재료를 섞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 작업을 통해 현대인의 본질적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엿보며 표현하고자 한다.

# **CONTENTS**

2018.1 \_\_\_\_ VOL.131



#### 테마토크 2017 다시 보기, 2018 미리 보기

그 어느 때보다 몸과 마음이 분주했던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보내고, 무술년 황금 개의 해를 맞았다. 12월 31일에서 고작 하루가 지났을 뿐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는 새해다. 1월 '테마 토크'에는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이하는 마음을 담았다. 문화예술계 이슈를 중심으로 2017년의 주요 뉴스를 꼽아봤으며, 2018년에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해봤다. 문화예술계의 새해 바람도 들어봤다.



#### <sup>사람과 사람</sup> **배우 진선규**

2017년을 빛낸 화제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 영화 <범 죄도시>로 청룡영화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진 선규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그에 대해 잘 모르는 사 람이라면 그를 갑작스럽게 발견한 좋은 배우로 여길 수 있겠지만, 그의 탄탄한 연기력 뒤에는 지난 15년간 묵묵히 연극 무대에서 실력을 닦아온, 노력의 시간이 있었다. 진선규 배우를 만나 그의 연기의 바탕, 그가정 립해온 연기의 방법론을 들어보았다.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주철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안현미, 씨네21(주)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디자인·사진 씨네21(주)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unhwaplusseoul

**발행일** 2017년 12월 29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 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 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 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 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진실혹은 대담 지역문화, 지역 현장의 기초문화재단 직원으로부터 듣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각 지역주체들과 함께 지역문화 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나가는 지역문화진흥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사업은 서울 안 각 지 역의 자원을 모아 새로운 만남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함께 계 획을 세우는 과정까지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기초 문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초문화재단 직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화제 연희문학창작촌, 문학웹진 <비유> 창간

지난 12월, 연희문학창작촌에서 문학웹진 <비유>를 창간했다. <비유>는 신인작가를 발굴하거나 기성작 가의 좋은 작품을 소개하는 기존 문학잡지의 틀에서 벗어나, 읽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함께 문학의 과정 을 고민하는 문학웹진을 표방한다. 문학을 접하는 색 다른 방법을 제시할 웹진 <비유>의 탄생 과정을 소 개한다.



01 커버 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곽수연

04 발행인의 말

주철환의 더다이즘, 열여섯 번째

#### 테마 토크 2017 다시 보기, 2018 미리 보기

- **08** 청년예술가 지원부터 근로자이사제까지 2017년 서울의 문화예술 10대 뉴스
- **14 사진으로 보는 문화예술계 이모저모** 뜨거웠던 일상의 온도
- **18 2018년 트렌드 전망** 바야흐로 '왝더독'의 시대가 온다
- **22 문화예술계 12인의 새해 소망** 2018년 문화예술계에 바란다!

#### 사람과 사람

24 배우 진선규

'믿고 보는 배우'를 꿈꾸다

30 시인 박준

달라지는 건 없더라도 함께 울어요, 우리

34 진실 혹은 대담

지역문화, 지역 현장의 기초문화재단 직원으로부터 듣다

40 예술가의 밥그릇

니트 디자이너 이준아

42 서울찰나

신경림의 시 <정월의 노래> 중에서

#### 이슈 & 토픽

44 쟁점1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부지 관련 논란

46 쟁점 2

박정희 동상 설치 논란과 '서울특별시 공공 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8 화제

연희문학창작촌, 문학웹진 <비유> 창간

50 아무나, 아!문화! PD

굿모닝스튜디오 기획전시 <기항지: a Port of Call>

#### 공간, 공감

52 공간1

청년공예작가 전시 프로젝트 <향유공예>

54 공간2

평화문화진지

56 공감1

뮤지컬 <햄릿:얼라이브>와 음악극 <한여름 밤의 꿈>

58 공감2

임흥순 개인전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과 2017 통일 테마전 <경계 155>, <더불어 평화>

60 공감3

책 <가인 김병로>와 <당신의 보통에 맞추어 드립니다>

62 예술적 상담소

#### Soul of Seoul

64 메모리인서울

한옥과 판잣집, 추억 속 서울의 주택가

66 서울 단상

그래픽 디자이너 겸 웹툰 작가 조경규의 명보 사거리와 인쇄 골목

68 서정민의 썰(說)

양희은의 <상록수>가 주는 메시지

70 장일범의 음악 정원으로

베르디와 바그너의 베이스 오페라 아리아

72 서울 건축 읽기

π-ville 99(파이빌 99)

74 영화의 틈

영화 <패터슨>과 시인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 1월의 서울문화매뉴얼

76 1월 Calendar

84 편집후기

주철화의 더다이즘, 열여섯 번째

# 11型至了11上 11型至21分十

올해 가을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주 2시간씩 합창 수업을 한다는군요. 음악수업의 연장이 아니고 따로 합창만 가르치고 발표하는 수업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노래의 의미와 삶의 재미를 동시에 터득하게 될 테죠. 중학교에서는 일단 선택과목으로 시행한답니다. 가짜뉴스 아니냐고요? 진짜긴 한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프랑스 얘깁니다. 한국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여기는 건 설마 아니겠죠.

'합창이 사람을 만든다, 프랑스의 교육 실험'이 소식을 전한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동안 숱한 교육 실험이 있었죠. "왜 우리가 애꿎은 실험재료가 되어야 하나요?" 숱한 항의가 있었지만 교육관료들의 '실험정신'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국가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경쟁력을 기르기보다는 경쟁심을 부추긴 실험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재다능'보다 '다정다감'한 사람, 창의와 협의를 모두 존중하는 사람, 혼자 이기는 사람보다 함께 즐기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은 도대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문화국가' 프랑스의 자부심은 기사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함께 노래를 불러보면, 함께 사는 법을 알게 된다." 저 역시 그랬던 순간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기 초 음악시간에 〈도나 노비스 파쳄〉이라는 노래를 합창곡으로 연습했습니다. 외모가 베토벤 같았던 김현중 선생님은 진지하고 짓궂은 표정을 번갈아 보여주시며 학생들을 어르고 감싸 안았습니다. 친구 창학이, 광선이의 개성적인 입놀림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도나 노비스 파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는 뜻이란 걸 알게 되었죠.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절은 지나갔지만 우정과 사랑의 온기는 오래도록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노래는 불러야 노래죠. 부르지 않는 노래는 악보에 불과합니다. 노래를 만든 사람의 기쁨과 슬픔은 그 노래를 불러줄 때 비로소 재생하고 부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 시간, 그 자리야말로 예술가와 시민이 하나가 되는 공감의 시간, 공간이 될 겁니다.

과거로 돌아갈 순 없죠. 하지만 현재 또한 과거가 되리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즐거움과 깨달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악이 없는 추억, 친구가 없는 교실은 얼마나 삭막합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이 마련 해주어야 할 것은 1등의 자리가 아니라 공동의 무대가 아닐까요? 상 받은 한 명 옆에 상처받은 여러 명이 기죽는 풍경보다는 함께 박수 치며 노래하고 움직이던 기억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동대문중학교에서 합창발표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 교육부 장관과 문회부 장관도 관객으로 참석했습니다. 합창을 지도한







교사는 "아이들의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데 합창만큼 좋은 교육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두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창을 초·중·고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상뉴스였습니다. 실은 작년 12월 프랑스 파리 13구(區)의 귀스타브 플로베르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번안' 한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당시 "모든 아이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각급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합 창, 연극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장관들 역시 "합창은 여러 목소리로 하나의 음악을 탄생시키는 작업"이라며 "합창은 즐거움 속에서 아이들 간 결속력과 연대의식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창'이라는 말이 들어간 오래된 시집이 있습니다. 1949년에 나온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입니다. 김경린・임호 권・박인환・김수영・양병식 등 5명의 시 20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70년 전 시집인데 〈매혹의 연대〉,〈장미의 온 도〉등 소제목들이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출판사 이름조차 '도시문화사'입니다. 요즘 트렌드인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시재생' 과 어딘지 맥이 닿아 있는 느낌입니다.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시재생'의 사례를 찾아서 영규, 대성, 준걸 등 직원 3명과 함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대만의 가오슝(高雄)이라는 지역입니다. 지하철 곳곳이 특색 있는 갤러리로 꾸며져 인상적이었습니다. 문화철도라는 말이 어울리는 풍경이었죠.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었고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금도 사진 속의 우리는 여전히 웃으며 서로를 반겨줍니다.

예술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여행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마지막 밤 숙소에서 저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직원들에게 음악 퀴즈를 냈습니다. 제 휴대폰에 수록되어 있는 1,000여 곡 중 일부를 들려주며 곡의 제목, 혹은 가수 이름을 맞히는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스토리 있는 음악을 들려주며 과거를 들추어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음악과 사연에서 저는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음악은 과거를 되살려주고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음악을 공유하는 이 순간조차도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먼 훗날 그들은 새로운 도시에서 젊은 후배 직원들에게 말할 겁니다. "그 음악을 들으니 그때 음악을 들려주던 그분의 따스한 표정이 떠오르네. 그런데 그분 지금도 살아계실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子戏别









파사현정(破邪顯正).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교수신문>에서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반을 만들었고, 올바른 개혁의 길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담은 의미 있는 관용구다. 그 어느 때보다 몸과 마음이 분주했던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보내고, 무술년 황금 개의 해를 맞았다.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6월에는 지방선거를 치르는 등 굵직한 국가 행사들을 앞두고 있다. 거기에 예측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이슈까지 더해져 새해에도 우리는 여전히 바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이다. 12월 31일에서 고작 하루가 지났을 뿐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는 새해다. 1월 '테마 토크'에는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이하는 마음을 담았다. 문화예술계 이슈를 중심으로 2017년의 주요 뉴스를 꼽아봤으며, 2018년에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해봤다. 문화예술계의 새해 바람도 들어봤다.



청년예술가 지원부터 근로자이사제까지

# 2017년 서울의 문화예술 10대 뉴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7년이 저물었다. 2016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총 19번의 촛불집회. 광장에 모인 사람만 1,500만 명이 넘었다. 광화문에서 폭발한 탄핵 여풍은 계속 이어졌다. 그동안 블랙리스트라는 무게에 짓눌려 있던 예술가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문학을 비롯해 공연과 미술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트렌드가 180도 바뀐 셈이다. 2017년 서울의 문화예술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가급적 정확한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했다. 서울문화재단의 각종 채널에서 노출된 프로젝트를 조사했으며, 언론으로부터 관심이 높았던 사업을 파악했다. 이 밖에 소통 채널을 통하여 피드백이 왕성했던 것들을 우선시했다.



#### 위기를 기회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초년생 청년예술가 지원

한국은행은 2018년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15세부터 29세에 이르는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8.6%에 이른다. 이는 1999년(8.6%) 이후 18년 만의 최고치다. 게다가 체감 실업률은 무려 21.7%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사실상 청년 5명 중 1명은 백수라는 뜻이다. IMF 이후 악화된 청년 실업의 문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졸업을 해도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계 또한 뾰족한 대안이 없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예술인임을 증명하지 않아도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예술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장벽 없이, 편견 없이, 정산 없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초년생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했다. 2017년에는 공공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는 39세 이하 또는 데뷔 10년 이하 청년예술 인과 단체 약 900명(팀)에 56억 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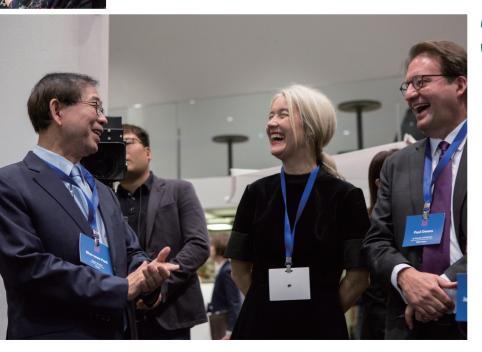






#### \_\_\_\_\_ 6,470원에 담긴 우리 사회의 모습

6,470원은 2017년 최저임금이다. 노동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1시간의 노동으로 벌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노동의 대가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린 6,470원으로 얻을 수 있는 삶의 행복은 제각각 다르다. '이 최저시급으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전시는 6,470원에 담긴 우리 사회의 모습을 오롯이 보여줬다. 서울연극센터는 올림푸스한국과 함께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예술가와 시민이 사진으로 소통하는 프로젝트〈엉뚱한 사진관 for 대학로〉의 결과 전시를 열었다. 〈6470展〉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전시에서는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19명의 참여자들이 편의점, 서빙, 과외, 콜 센터등 약 50가지 아르바이트에서 겪은 경험과 6,470원으로 할수 있는 나만의 지출을 담은 사진을 전시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저시급과 청년 문제를 뉴미디어를 통해 보여줬다.



####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린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서울총회'

전세계 28개 도시에서 100여 명의 회원도시 대표단과 문화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교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시청,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서울에서 열린 국제문화정책 네트워크인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es Culture Forum, 이하 WCCF)이 그것이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번 WCCF의 주제는 '창조도시를 넘어서' 문화시민도시에서의 문화와 민주주의'였다. 서울시의 문화시민도시 비전과 시민의 참여로 커다란 변혁을이뤄낸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한 WCCF 서울총회는 삶속의 문화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와 작은 규모의창조적 생산이 세계도시들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 

인간은 왜 자유를 원하면서 동시에 통제되기를 원하는 걸까. 11월 2일부터 12 일까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무대에 오른 연극 〈파란나라〉가 던진 질문이 다. 남산예술센터와 극단 신세계가 공동 제작해 같은 장소에서 초연했던 이 연 극의 모티브는 1967년 미국 캘리포니아 큐벌리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실제 실 험에서 따왔다. 이 학교의 역사교사 론 존스는 "나치는 10%에 불과했는데, 왜 90%의 독일사람들은 홀로코스트를 막지 못했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실험 으로 그 가능성을 알아보자고 제안한다. 실험은 첫날 학생들에게 '바른 자세로 앉기' 등 간단한 규율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제3의 물결'이라고 명명 된 이 실험에서 '물결무늬의 심벌'이나 '나치의 경례와 유사한 경례 방법' 등 추 가적 규율이 더해지자 학생들 중 철저한 신봉자들이 생겨났다. 특히 이들 중 공 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조직은 규율을 어기는 일반 학생들을 협박하는 상황에까 지 이르렀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을 경험한 존스는 결국 5일 만에 실험을 끝마친다. 〈파란나라〉는 초연 당시 꼼꼼한 학교현장 취재와 일반 학생 들과의 협업, 워크숍 및 토론 방식을 거쳐 제작돼, 경쟁 시스템에 빠진 한국의 학교를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고교의 원래 실험 과정에다 무한 경 쟁에 내달리는 한국의 고등학교 상황을 보탠 것이다. 〈파란나라〉에는 실제 고 등학생 14명이 등장한다. 4월부터 26주간 워크숍을 통해 선발된 인원들이다. 이와 함께 공고로 모집한 103명의 시민이 공연에 출연했다. 〈파란나라〉는 한국 연극협회가 선정한 '2017 공연 베스트 7'에 뽑히는 성과를 올렸으며, 문화예술 계를 비롯해 교육계에서도 눈여겨볼 연극으로 선정했다.











거리예술은 최근 우리나라 축제의 대표 콘셉트다. 영국의 에든버러, 프랑스의 오리악 축제처럼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의 축제들도 거리예술 중심으로 변화하 고 있다. 축제의 명성을 떠나 정해진 공연장 등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진행하던 방식을 벗어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 아닐까. 4년째 를 맞은 〈거리예술 시즌제〉는 사실 이런 변화의 흐름 한가운데 서 있었다.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는 2014년부터 봄과 가을 시즌에 다양한 거리예술 공연을 묶 어 〈거리예술 시즌제〉를 선보였다. 이에 따라 거리예술에 이야기가 더해지고. 서커스와 같은 대규모 볼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데 작지 않은 역할 을 해왔다. 홍대나 청계천 등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버스킹 수준을 뛰어넘 었다.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긴 추석 명절 연휴의 종반부였던 10월 5~8일에 서 울광장과 세종대로 등지에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펼쳐졌다. 그동안 서울에서 열렸던 거리예술의 백미만을 모아 보여준 〈서울거리예술축제 2017〉은 참가 공연단 규모부터 세계적인 축제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았다. 영 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8개국의 해외초청 작품 47편을 비롯해. 거리예술이 라는 실험을 거친 뒤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한국팀의 공연 등 총 145개의 공연을 선보였다. 이 공연들이 광장(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거리(청 계천로, 세종대로, 덕수궁 돌담길), 도심재생공간(문화비축기지, 서울로7017. 무교재생공간)을 무대로 펼쳐졌다. 축제 첫날인 10월 5일 서울광장에서 선보인 개막작 〈무이레〉는 지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웅장한 공연이었다. 특히 한국 대 중예술을 대표하는 이승환밴드가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해 관람객의 환호에 응 답했다



#### 윤이상 탄생 100주년, 서울 도심 곳곳의 클래식 향연

6월 4일, 서대문구 연세대 교정에 자리한 '금호아트홀 연세'에 학생 30명가량이 오디션을 보기 위해 모였다. 이들은 바이올린,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를 전공하는 음악 학도들이었다. 이들의 목표는 8월 〈프롬나드 콘서트〉에 참여하는 프로젝트 그룹의 단원이 되는 것이었다. 프랑스어로 '산책'이라는 뜻의 이 행사는 탄생 100주년을 맞은 윤이상(1917~1995)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문화역서울 284, 윤동주문학관, 서울로7017, 다시세운광장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윤이상의 현대음악이 울려 퍼졌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음악 세계를 들려준 콘서트에서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 태어난 윤동주의 작품, 오페라 〈심청〉의 모티브가 됐던 판소리, 우리나라의 춤을 전 세계에 알린 비보이와 현대무용까지 다양한 장르와의 협연이 펼쳐졌다.

# 서울 생활 예술 선언

일시 2017. 9. 21. Thu. 13:00

장소 시민청 활짝라운지 Open Lounge, Seoul Citizen's Hall





#### 사을 바꾸는 생활예술의 힘··· 시민, 예술가가 되다

전 세계 생활예술 음악인들의 축제,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Seoul International Community Orchestra Festival)가 9월 16~24일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는 2014년에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31개국으로부터 70개 단체, 4,400여 명이 참여해 총 60회의 공연을 펼치며 역대 최대규모로 열렸다. 성대한 규모만큼이나 출연진도 화려했다. 우선 파라과이의 쓰레기 매립지에 있는 빈민촌 카테우라의 실회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랜드필 하모니〉(2015)의 실제 주인공들이 내한했다. 버려진 깡통과 페트병으로 바이올린과 첼로를 만들어 음악을 들려주는 '카테우라 재활용오케스트라'가 바로 그들이었다. 9월 17일 광화문광장에서는 435개 학생 오케스트라의 대표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1000인의 오케스트라' 협연이 성사됐다. 한편 유엔 세계평화의 날인 9월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29개국 63명의 시민대표들과 함께 생활예술 장려를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담은 '서울생활예술선언'을 발표했다.

# 8

#### 모바일 시대… 누구나 문화예술을 창작, 확산, 보급한다

스마트폰의 킬러 콘텐츠로 꼽히는 영상이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동영상 플랫폼과 영상콘텐츠의 트래픽이 고공 행진했다. 지난해 4월 서울문화재단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7년 경영전략 중 하나로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정보를 생산, 전달하는 '아무나PD'를 발표했다. 텍스트에서 시작한 콘텐츠가 디지털 이미지를 거쳐 영상으로 진화한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영상콘텐츠 플랫폼(www.sfac.or.kr/html/sfacmovie/sfacmovie.asp)을 구축했으며, 재단을 비롯해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식을 영상콘텐츠로 창작, 확산, 보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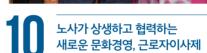


## 일상 속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 구현, '달리는 문화철도'

9월 2일,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를 관통하는 총 13개 역의 지하철이 개통됐다. 여느 지하철과는 다르게 열차뿐만 아니라 역사까지 모든 것이 작다. 이는 총 11,4km에 이르는 우이신설선으로, 무인으로 운행되는 서울특별시의 첫 번째 도시철도다. 지하철이 지나는 서울의 동북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이 열악한 편이다. 게다가이곳은 지리, 인구 통계, 경제 관점에서 문화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각박한 삶에 지친 지역주민과 승객들을 위해 문화예술로 휴식을 전하는 문화철도가 시작됐다. 우이신설선에 장착된 '문화철도' 프로젝트는 상업광고에서 벗어나 광고판을 문화예술 콘텐츠로 채우는 것에서 출발했다. 예술가의 수준 높은 작품을 보기 위해 전시장에 가야 하는 수고를 덜어내고, 역사와 열차에서 직접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역마다 지역성을 대표하는 서로 다른 주제의 작품이 시즌별로 공개됐다. 지하철역이 서로 다른 문화예술 플랫폼이 되는 순간이었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가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이사로 참석해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미국 일부 지역과 독일이나 스웨덴 등 유럽에서만 시행되어왔는데,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거쳐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중 13곳에 도입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4월 서울문화재단은 전국 문화예술기관 최초로 근로자이사를 임명하여 문화예술생태계를 조성하는 의사 결정에 직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이사는 직원들이 직접투표로 1~2명을 선출하는 비상임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임기는 3년이다. 근로자의 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노사 분쟁을 감소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근로자이사제가 문화예술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 이규승\_ 서울문화재단 IT홍보팀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사진으로 보는 문화예술계 이모저모

## 뜨거웠던

### 일상의 온도

2017년은 모두에게 의미 있고 소중했다. 오랜 진통의 과정 끝에 변화와 희망이라는 귀한 결 과물을 얻었으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추 억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이슈를 중심으로 한 화보를 준비했다. 새해를 시작하 며 지난 시간을 정리해보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광화문 촛불 행렬로 이어졌고, 예술인들은 블랙텐트와 같은 예술 행동으로 힘을 보탰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 가 탄핵 인용을 결정한 뒤 장미대선이 치러졌고 문재 인 대통령이 당선됐으며, '청와대 F4', '얼굴 패권주의' 등의 신조어를 유행시키며 문재인 정부의 발 빠른 행 보가 이어졌다.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기념 특별판

유례없는 열혈 팬덤을 형성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대통령 관련 서적과 영화들이 사랑을 받았다. '이니굿즈', '문템', '이니템' 등으로 불리며 대통령 우표, 달력, 시계, 신발 등이 큰 인기를 얻었다. 대통령기념우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페미니즘은 2017년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여성의 삶을 소재로 한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을 필두로 페미니즘 소설 <현남오빠에게>, 강화길 작가의 <다른 사람>, 박민정 작가의 <아내들의 학교> 등 다양한 페미니즘 관련 도서가 출간됐으며, 며느리가 되며 변화를 겪는 시기를 그린 웹툰 <며느라기>가 기혼 여성들의 공감을 얻었다. 성폭력과 여성혐오 등을 소재로 한작품 <가해자 탐구\_부록:사과문작성가이드>가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올랐다.

문화예술계 갑질 논란과 불공정 거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월 27일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가 문을 열었고, 2월 28일 열린 제14회 한국대 중음악상 시상식에서 가수 이랑은 '트로피 경매' 퍼포먼스를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3월에는 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 출범했으며, 6월 12일 서울연극센터에서 '문화예술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청책 토론회'가 열렸다.



일 년 내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축제들이 이어졌다. 서울 곳곳의 일상 공간에 서 예술을 만나는 <거리예술 시즌제>, 서울의 대표적 여름축제인 <2017 한강 몽땅 여름축제>, 추석 연휴를 예술로 물들인 <서울거리예술축제 2017> 등이 우리의 일상을 행복하게 했다.



조남주 장면소설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서울 곳곳의 공간들이 시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기술을 가진 장인들과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협업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간으 로 다시 태어난 '세운상가', 고가 도로를 공중정원으로 꾸민 '서 울로7017', 석유비축기지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 '문화 비축기지' 등이 그 예다. 2017년 작곡가 윤이상, 시인 윤동주, 화가 장욱진이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들이 펼쳐졌다. 서울문화재단은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8월과 9월 <프롬나드 콘서트>를 진행했다.





9월 2일, 지하에서 무인으로 운행되는 서울시의 첫 번째 도시철도 '우이신설선'이 개통했다. 이동수단을 넘어 공공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진화한 '달리는 문화철도'가 시작된 것이다.



국제문화정책 네트워크인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World Cites Culture Forum)이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서울총회를 통해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시민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일상에서 생활예술 활동을 즐기며 시민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생활예술 시대'를 맞았다. '제4회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가 열렸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제 기간 중에 세계시민이 생활예술가로 함께하길 염원하는 '서울생활예술선언'을 발표했다.

#### 2 0 1 8 년 트 렌 드 전 밍

# 바야흐로

# '왝더독'의 시대가

온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시대의 트렌드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다. 새해를 앞두고 2018년을 전망하는 각종 트렌드 서적이 쏟아졌다.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 저출산과 고령화 등 여전한 사회적 문제들 속에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에 감동하고 열광할 것인가. <트렌트 코리아 2018>은 사회적 약자, 즉 언더독이 약진하는 최근의 사회현상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2018년의 트렌드 키워드를 '왝더독'(wag the dogs,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으로 선정하고 새해를 전망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소개한다. 우리의 일상이 어디로 연장되고,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자. 새해가 됐다고 세상이 리셋되는 건 아니니까.



#### '나'와 '행복'에 무게중심을 두다

#### 새로운 가치관을 장착한 '직딩'의 출현

#### 위라밸

타인과의 관계보다 스스로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벨'을 중시하는 새로운 '직당'이 출현했다. 워라벨은 '일과 삶의 균형' (work—and—life balance)의 준말. 워라벨 세대는 호모 나이트쿠스 혹은 나포츠족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세대다. '적당히 벌고 아주 잘살기'를 희망하는 워라벨 세대에게 일과 여가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들에게 '칼퇴'는 기본이고, 취직은 '퇴직 준비'와 동의어이며, 직장생활은 더 소중한 취미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편이다. 그래서 '저녁시간 시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과중한 업무와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패스트 힐링(fast healing, 짧은 시간에 취하는 휴식)을 추구한다. 나 자신(myself'), 여가(leisure), 성장(development)은 워라벨 세대에게 희생할 수 없는 가치다.







#### 일상에서 누리는 사소한 행복, 그뤠잇!

#### 소확행

'지금 하고 싶은 것, 지금 하면서 살자'는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열풍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소확행(小確幸)으로 발전했다. 소확행은 1990년대 발간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 〈랑겔한스섬의 오후〉에 처음 소개된 신조어로, 별 볼 일 없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에서 느껴지는 작은 행복감을 의미한다.소확행의 핵심은 '사소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꼭 특별한 성취가 없다 하더라도 나의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즉 행복을 바라보는시각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행복은 미래에서 지금으로, 특별함에서 평범함으로, 강도에서 빈도로 변화했으며, 일상에서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중요해졌다. 이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성공, 사치가 아니라 커피, 자전거, 인디음악, 아날로그, 동물, 요리, 맥주, 채식처럼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뭐든 집에서 해결하는 '홈루덴스족'도 등장했다. 소확행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그려야 하며 행복에는 정답이 없다는 게핵심이다.

#### 도처에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다

#### 케렌시아

스페인어인 '케렌시아'(querencia)는 투우장의 소가 투우사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곳을 말한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자신만의 휴식공간, 케렌시아가 있다. 이는 단순한 수동적인 휴식을 넘어서 능동적인 취미와 창조 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좋아하는 물건들로 자신의 책상을 꾸며 직장에서도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일을 마친 후에는 자신만의 아지트인카페에 들러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맥주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책맥카페'나 요가와 맥주를 함께 즐기는 '요가카페' 등이 속속 생겨나는 것도 나만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려는 현대인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케렌시아의 대표적인 공간은 바로 '집'이다. 덕분에 집을 푸른 식물로 꾸미려는 플랜테리어 트렌드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수면카페, 힐링카페, 낮잠 자는 극장을 비롯해 '대나무숲'과 '블라인드' 등 익명공간의 발달도케렌시아가 상업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음을 알려준다.



####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다

신념의 커밍아웃을 허하노라

#### 미닝아웃

자신의 주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던 자기만의 취향과 정치·사회적 신념을 '커밍아웃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미닝아웃' (meaning out)이라고 한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 정받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놓고 표출한다. SNS에서의 글 쓰기는 이러한 욕구를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미닝아웃이 전통적인 불매운동이나 구매운동과 차원이 다른 지점은 그 의미가 다양하고 표현 방법도 놀이처럼 변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SNS의 해시태그는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을 세상에 소리칠 수 있게 했다. 그뿐인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한다. '마리몬드'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꽃 삽화 티셔츠가출시되자마자 품절이 될 만큼 열띤 호응을 얻었고, 팔찌부터 휴대폰 케이스까지 다양한 굿즈들이 미닝아웃의 도구가 되었다. 미닝아웃의 최종 단계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일상을 바꾸는 소비를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채식주의다. 이제 무엇을 걸치고 어떤 가방을 들고 무엇을 먹느냐가 '나'라는 사람을 정의한다. 소비를 통해 부를 과시하던 시대는 저물었다. 이제 소비는 투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표를 던지는 행위가 되고 있다.



뭣이 중헌디? 마음이 중허지!

#### 플라시보 소비

플라시보 효과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으로 위약효과 또는 가짜약 효과라고도 한다. 플라시보효과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플라시보소비'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다. 가성비가 중요했던 시대에서 벗어나 단순히 제품의 '성능'이 아닌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즉 '가심비'(價心比)를 추구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 브랜드와 연관된 굿즈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브랜드보다 자신이 아끼는 분야나 '팬심'에 따라소비가움직일 것이란 이야기다. 탕진소비와 시발비용(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쓰지 않았을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 계획하지 않은 곳에 돈을 사용한다는 의미의 '탕진잼'은 2030세대에게는 익숙한 소비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탕진소비의 성지로 불리는 인형뽑기방 등이 대표적이다.











#### 삶의 '효율성'을 높이다

#### 만나지 않아도 알아요

#### 언택트

'불편한 소통' 대신 '편한 단절'을 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공항에서든 패스트푸드점에서든 이제 사람 대신 모니터 화면이 고객을 맞이한다. 근 몇 년 사이 금융권을 휩쓸었던 '비대면 거래'에 이어, 유통업계에도 '언택트(un—tact) 마케팅'이 번지고 있다.

언택트는 무인 항공기의 '무인'(unmanned), 자율주행 자동차의 '셀프'(self'), 사람 대신 로봇이 작동하는 공장의 '자동화'(automation) 등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비대면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닌 서비스들의 통합 개념이다. 인공지능(AI) 과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기술의 진화 역시 '언택트 마케팅'의 플랫폼이 되고 있다.

언택트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불필요한 대면 접촉에 대한 피로감을 줄이고 이전보다 쉽고 빠르게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언택트 기술의 보편화는 일자리 감소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소외시키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반면에 그동안 무료로 인식됐던 인적 서비스가 프리미엄화되면서 서비스차별화가 핵심 요소로 등장하는 등 관련 시장의 변화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 서비스가 핵심이다

#### 만물의 서비스화

아파트를 고를 때 시공사와 인테리어보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발레파킹은 기본이고 하우스키핑과 컨시어지 서비스, 호텔급 조식까지 누릴 수 있는가가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동차를 살 때도 앞으로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내부 서비스가 더 큰 고려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자동차가 그저 운송수단이 아니라 달리는 '서비스 단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서비스는 제품을 둘러싼 모든 것, 제품과 연결되고 융합된 것으로서 제품 차별의 주요한 방법이 되고 있다.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은 만물의 서비스화를 더욱 앞당기는 배경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의 시간을 효율화할 수 있고, 수치화되기 어려운 감성적만족도를 측정해 효과적인 퀄리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될 것이다. 이제 서비스는 제품의 선택을 좌우하는 결정 요소가 되었다.

글 한율\_자유기고가 **참고 도서** <트렌드 코리아 2018>(김난도 외 지음, 미래의창) 그림 최지예

# 2018년 문화예술계에 바라다!

2018년 무술년을 맞아,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언론인, 장르별 예술인들에게 새해 문화예술계에 바라는 각자의 바람을 물었다. 다양한 의견이 모인 가운데, 이야기의 중 심에는 '사람'과 '소통'이 있었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 는' 세상에 대한 간절함이 녹아 있었다.



#### 이 등 및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 동네도 정글이라면 정글이다. 저마다 힘껏 살아내야 하는 현장이다. 다양한 주체들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생태계다. 2018 년에는 이 판이 좀 더 공정했으면 좋겠다. 약한 목소리로 외친 다고 묻히지 않고 덜 논리적이라고 무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갈등과 경쟁은 인정하지만 합당한 이유 없는 배제와 매도는 외 면했으면 좋겠다. 시끄럽고 공정했으면 좋겠다.

#### 41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2017년은 중국의 사드 보복, 북한의 핵 위협 등으로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했다. 그 여파로 문화예술계의 국제적 교류가 부족했다. 2018년에는 정치 문제와 상관없이 문화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디자인계에서도 한·중·일 3국의 디자인위크가 본격적인 협력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 디자이너들의 역량이 국제적으로 조명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713 T 월간 〈퍼블릭아트〉 편집장

2017년 현대미술의 중심 키워드로 등장했던 '아시아', '여성', '공 동체' 등이 2018년에는 보다 견고한 기획으로 선보이기를 바란 다.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미디어아트비엔날레 등의 행 사가 전혀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기보다 최근 전시의 과정과 결 과를 바탕으로 밀도 깊은 이론을 도출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다. 더불어 벌써 몇 해째 표류하고 있는 아티스트피 등의 행정 이 구체적 방향과 윤곽으로 확정되는 2018년이 되길 기원한다.

#### 불물이는 작가, 기획자

공공성을 띤 프로젝트를 위해 진행한 협업이 내부 갈등으로 인해 무산되었을 경우 남은 결과물은 누구의 것인가. 해당 콘텐츠가 중단되기까지 치열하게 함께 고민한 과정의 시간은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를 자발적인 모임 및 임의적 단체의 취약점으로만 보는 건 조금 씁쓸하다. 관계 유지를 위한 성숙한 태도와 성찰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여전히 계약 없는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신뢰의 시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

#### 유단선 CBS노컷뉴스 문화부 기자

식의주(食衣住). 인간이 생활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3대 요소이다. 2018년에는 이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문화예술인이 절대 없기를 희망한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향상이 올해는 제도적으로 자리 잡고, 특히 예술인에게 4대 보험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반드시 마련, 시행되기를 바란다.

#### 조사인 서울경제 문화레저부 차장

2018년 깊고 넓은 문화계가 되기를 기원한다. 예술인들은 깊이 있게 파고들어 추구하는 본질에 근접하는 작업을 이루기를, 그 리하여 이를 접하는 관람객들은 더욱 폭넓고 다양하게 문화를 즐기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 

지면상 하나의 바람을 적어본다. 모든 심사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 특히 몇 명의 심사위원들만이 동시대 예술가들의 생각을 알고 결정하는 방법에서 모든 지원자가 서로의 생각을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심사방법으로 바뀌길 바란다. 1차는 지원자 모두가 참여하는 다면적 평가, 2차는 전문가 평가면 좋을 것같다. 근본적으로 지원제도의 심사가 등수를 매기는 평가의 장이 아닌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 디자인되길 기원한다.

#### 0 1 0 1 7 ト 독립기획자, 전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폭력은 차이를 지우려고 할 때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값비싼 대가이다. 인간은 모두 다르다. 예술은 이러한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감각과 시선을 드러낸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검열과 블랙리스트로예술가를 억압했다. 예술가들은 최전선에서 저항했고 침묵하지 않았다. 예술은 다름이다. 차이와다양성이 더욱 독려되고 다양한 목소리와 감각이 뒤섞이는 예술현장이 되길 바란다.

#### 고:371 문학평론가

책 100만 부가 팔리는 스타 작가가 출현하기보다는 책 1만 부가 팔리는 작가 100명이 탄생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젊은 작가, 중견 작가, 원로 작가 모두 자신이 선 자리에서 독자들의 상투성을 깨는 작품들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문학의 적은 인습에만 의존하는 진부함 아닌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문학 관련 정책 또한 정부 일방이아니라 협력의 평상에서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 '사람이 있는 문화'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なな 全型か

무지와 폭력의 세상에서 예술가들은 저가 먼저 이파 뒹구는 존재들이다. 짧지 않은 시절 동안 눈물의 그림과 시·소설이, 시린 겨울 광화문 텐트와 저항의 노래, 무대가 넘쳐났던 이유이다. 그러니 올해부터는 문화예술계가 별 존재감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좋은 세상에는 문화예술인이 굳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제멋대로의 방식으로, 사람 사는 세상의 근사한 모델을 창조해내고 보여줄 때이다.

#### 7.10 기구 두 댄스 씨어터 대표, 릿교대 영상신체학과 특임준교수

지난 문화예술계를 되돌아보면, 그때그때 철모르고 튀어 나오는 공연과 전시들이 많았던 듯하다. 2018년 문화예술계는 모든 것이 충분히 머물고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술가들이 충분한 여유와 시간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예술가들에게는 지원금과 발표 일정에 자신의 작업을 맞추는 해가 아니라, 자신의 작업에 따라 발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해가 되길 바란다. 지원하고 후원하는 기관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와 평가보다도 긴 안목과 기다림으로 조금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가 되길 바란다. 언론에서는 화려한 무대위의 예술가들에 대한 기사만이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삶에 대한 기사도 많이 볼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긴 호흡의 예술가들이 많이 태어나고, 동료 예술가들에 대한 우정이 뜨겁게 넘치는 2018년이 되길 바란다.

#### 건물는 무용가

2017년 문화예술은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풍파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검열과 탄압 속의 예술은 너무나 초라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지금,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는 평화 무드 안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표출하며 전 세계에 널리 소개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지원을 부탁드린다.



# "工工生工"当

2017년을 빛낸 화제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 영화〈범죄도시〉로 청룡영화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진선규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최근 드라마〈육룡이 나르샤〉,〈닥터스〉뿐만 아니라 영화〈특별시민〉,〈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남한산성〉 등의 화제작에서 숨은그림찾기처럼 제 역을 해내고 있던 그는 〈범죄도시〉에서 늘 해오던 선한 역할이 아닌 악당으로 분위기를 바꾸어 승부를 걸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를 갑작스럽게 발견한 좋은 배우로 여길 수 있겠지만, 그의 탄탄한 연기력 뒤에는 지난 15년간 묵묵히 연극 무대에서 실력을 닦아온, 노력의 시간이 있었다. 진선규 배우를 만나 그의 연기의 바탕, 그가 정립해온 연기의 방법론을 들어보았다. 청룡영화상 수상 소감 자체가 배우 진선규의 드라마를 알려주는, 감 동적이고 진솔한 드라마였다.

상을 받을 줄 정말 몰랐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단상에 올라가면 고마웠던 사람들을 언급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니 머릿속이 백지가 되더라. 지금도 나는 그 수상소감 못 본다. 너무바보같이, 배우 같지 않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민망하더라. (웃음)

덕분에 〈범죄도시〉를 안 본 사람들도 부쩍 진선규라는 배우에 대한 궁금증이 배가됐다. 방송가에서는 지금 진선규 캐스팅이 미션이 되 었다.

정말 너무 큰 관심을 주시더라.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시고, 예능 섭외도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말주변이 없어서 예능은 잘할 자신이 없다. 지금 이 시간, 이런 반응들이 내 인생에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예전 씨네21 인터뷰에서 5살 난 딸아이가, 아빠를 '드라마〈육룡이 나르샤〉에 나온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수상에 대한 딸의 반응은 어떻던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웃음) "아빠,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범 죄도시〉잘 봤다고 축하한다고 전해달래" 하더라. 최근엔 IPTV에 〈범죄도시〉광고가 나오니, "아빠 나오는 거 한다" 이렇게 말은 하 더라.

연극 무대에서 함께 배우로 활동하는 아내 박보경 씨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그만큼 가장 가까이서 배우 진선규 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셈 이다.

진짜 그 말을 들으니 정신 차려야지 하는 마음이 더 커지더라. 다음 작품 대사도 외우고, 역할 고민도 해야 하는 시간이니 이제 평정심을 되찾아야 할 것 같다. 오래 알았던 동료, 후배 모두 나에게 당연히 이런 날이 올 거야 하고 기대를 해준 사람들이다. '공연배달서비스 간다'(이하 간다)의 대표이자 친구인 민준호 대표도 "이제 스터디해야지. 다음 작품 잘해보자"고 하더라. 내가 증명해야 하고 각인되어야 할 곳은 결국 무대와 스크린이다. 더 좋은 연기를 해야지. 지난 10여 년간 꿈꿨던 '믿고 보는 배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이 더 깊어졌다.



〈범죄도시〉이후〈꾼〉에서도 사기꾼들에게 속는 피해자 역할로 짧게 등장해 또 한 번 화제가 됐다. 〈범죄도시〉 흥행 이전과 달리, 이젠 짧게 나오더라도 '진선규의 존재감'이 보인다. 큰 변화다.

"〈범죄도시〉때와는 다른 이미지다", "자연스럽게 잘했다" 등의 피 드백을 많이 받았다. 나를 알아봐주고 내 연기를 평가해주는 관객들 이 생긴 거다. 전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반응이다. 아마〈범죄도시〉 가 아니었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역이었을 텐데, 불과 얼마 만 에 배우 활동에 있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별시민〉(2016)에서 3선 의원 변종구의 측근 길수,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2016)의 보안계장, 〈남한산성〉(2017)의 비극적 최후를 맞는 초관 이두갑 등 〈범죄도시〉이전의 작품들에서 짧지만 인상적인 역할로 활약해왔다. 그 저변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기를 공부하고 간다의 일원으로 무대에서 쌓아온 15년의 연기 경험이었었다. 특히 문성근, 송강호, 이성민, 오지혜, 전혜진 등을 배출한 전통의 '차이무'와 함께, 최근 간다 역시 실력 있는 배우들의 등용문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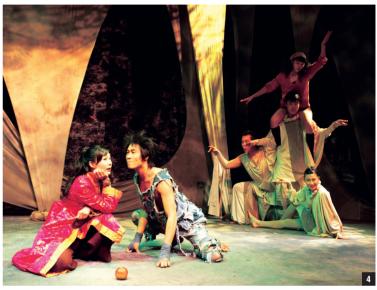
우리가 극단을 부르는 말은 '간다 유치원'이다. 놀고 싶은 사람들이







- **1**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
- 2 <나와 할아버지>.
- 3 <뜨거운 여름>.
- 4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와서 놀고, 수다 떨고 하루 종일 있다가 집으로 가는 곳. 대학교처럼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막 말을 배우는 유치원이었다. 출발은 말씀 하신 차이무를 비롯해서 수레무대, 사다리 같은 극단이었다. 대학로에서 처음 극단을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아기'였고, 그분들은 우리에게 너무 큰 선배이자 산이었다. 선배들이 구축한 극단의 모양새, 연기 스타일을 보고 배우며 적용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나갔다. 처음에 우리는 연기도 못했었는데, "(이)성민 형은 어떻게 저런연기를 하는 거야!" 하고 감탄하고, 돌아와서 우리끼리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그러다 보니 선배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술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난 10년간 대학로에서 인정받는 극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간다의 민준호 대표는 이번 〈범죄도시〉로 주목받은 이후에도 "이번에 잘했어. 그래도 다음 단계를 위해서 공부해야 해"하고 늘 자극을 준다고 들었다. 일종의 스터디 그룹 같은 방식으로 매진해온 시간들이다

우리 방식이 그랬다. 다 같이 앉아서 연극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렇게 토론한 걸 민준호 대표가 정리하고 워크숍 자료로 만들었다. 일

종의 신체 워크숍인데 춤, 소리, 인터뷰 같은 걸 모두 모아서 동영상을 만들었다. 배우들이 그걸 보고 연구하고 연기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를 제작해 워크숍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의 5년간 유지해왔다. 그걸 토대로 1년에 한두 작품씩 꼭 무대에 올렸다. 작은 극단임에도 꾸준히하다 보니 관객층이 생기고, 간다라는 이름도 생기고, 우리 색깔도 생겼다. 그러다가 "이 극단은 연기 잘해. 여기서 하는 건 무조건 가서 봐야 해"하는 고마운 반응들도 생겼고. 우리가존경하는 차이무, 수레무대, 사다리 선배들과 교류도 많아졌다. 그분들의 공연에도 참여하고, 그쪽 배우들이 우리 공연에도 같이 참여했다.

〈범죄도시〉에서 배우들이 캐릭터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과정이 극단 간다의 작품 연구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간다의 워크숍은 더디게 가더라도 기본기를 착실하게 연마하자는 목표가 뚜렷해 보 인다.

맞다. 일종의 기본기 단련 과정이다. 기본적으로 '나 이렇게 할래' 하지 않고, 참여하는 배우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나간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 더 좋은 것을 만들지, 두 사람이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연구한다. 캐릭터를 처음 만들 때 그래서 모사를 많이 한다. 인터뷰를 많이 하고, 영상도따라 해본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캐릭터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온다. 그 캐릭터의 사고방식이 배우에게 자리 잡히는 거다. 가령 '그는 너무 단도직입적인 사람이야' 혹은 '그는 사람들을 너무막 대해' 같은 성격을 체화하는 게 중요하다. 100% 완벽하게 그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의 주관, 가치관이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다. 그때부터는 술술 풀리게 된다. 〈범죄도시〉때도 배우들끼리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게 모든 캐릭터를 살아 있게 만든 것 같다.

이론상으로는 쉽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다. 처음 그 방식이 통했을 때, 말 그대로 캐릭터의 사고방식을 체화했을 때의 경험은 엄청난 희열로 다가왔겠다.



캐릭터의 사고를 최대한 이해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하지 만 노력해서 그 지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게 결국 배우의 과 제라고 생각한다. 5년 전쯤 연극 〈나와 할아버지〉에서 할아버지 역 할을 했다. 전쟁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 민 준호 대표의 할아버지 이야기가 바탕이 되었다. 공연 전, 민준호 대 표가 할아버지의 음성을 녹음해 와서 들어보라고 하더라. 따라 하 지 말고,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헤아려보라고 하더라. 그렇게 한쪽 다리를 잃은 콤플 렉스로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처 많았던 그분의 세월을 떠 올려보니 그 행동들이 이해가 가더라. 공연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어쩌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역할의 모습을 만들어갔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나는 할아버지를 연기하기 위해 특별히 디테 일을 잡은 게 없고, 그냥 그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 그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 그때 방식이 내 연기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인물을 생각하 다 보면 보는 눈도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면 몸의 쓰임도 달라지고, 캐릭터 고유의 특색이 배어 나온다.

올해 초연한 연극 〈신인류의 백분토론〉은 공연 전체를 갑론을박 토

# 론으로 채운다. 워크숍을 통한 간다의 연구방식이 극의 형식과도 결합된 획기적인 공연이었다.

〈거울공주 평강이야기〉는 학교에서 체육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 여서 만들었다. 신선한 뮤지컬로 이슈는 됐지만, '쟤들은 운동을 잘 하니 말은 잘 못할 거야' 하는 선입견이 있더라. 그런 인식을 재고하 려는 고민이 컸던 때라. 워크숍을 하면서 민준호 대표가 손석희의 〈100분 토론〉을 모티브로 연극 아이디어를 냈다. 100분 동안 동선 의 변화 없이 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만 하는 연극이다. 이 방법은 우리 극단의 이희준 배우의 생각이었는데, 한 번 해보자고 했다. 다 양한 지위. 계급의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배우들이 그걸 그대로 모 사하는 방식이다. 배우 각각의 특징이 살 수 있는 대본을 쓰기로 했 고, 의견이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이라는 주제를 가져왔다. 관련 다큐멘터리 100여 편을 보면서 대본을 썼는 데, 처음 나온 대본이 105쪽에 달했다. 그걸 줄여서 창작지원을 받 아 시작했다. 나는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 같은 역할이었는데, 태 어나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역은 처음이었다. 한 달 반 동안 연습 했지만, 진화생물학자 타이틀을 가진 이의 말을 옮겨야 하니 공연 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과연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어마어마 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 박사학위 받았어"라고 할 정도로 연구하 고 연습했다. 다행히 새로운 도전에 대한 관객들의 호응이 컸다.

#### 〈범죄도시〉가 연극과 비슷한 협업과정이 이루어진 것과 달리, 그간 영화에서 작은 역할들을 하면서 연극 무대에서의 희열을 느끼기에는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극복해나갔나.

정말 스크린으로 오니 상황이 100% 달라지더라. 주어진 대사만 빨리 외우고, 빨리 찍고, 그렇게 찍은 것도 많이 편집됐다. 연극 무대에서 보람을 느낀 것과는 다르더라. '난 지금까지 이렇게 연기를 대하고 실력을 쌓아왔는데, 이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디션을 보는 족족 다 떨어졌다. 알아보니, 인지도문제였다. 기왕이면 작은 역도 인지도가 있는 배우를 선호한다더라.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안심이 됐다. 연기력이 아니라 인지도 때문이라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는 말자고 생각했다. 그 사이 영화계에

서 인정 못 받고, 집(연극 무대)에 와서 보상받으려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당분간은 영화계에서 결단을 내기로, 끝까지 매달려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외부 공연은 전혀 하지 않고, 한동안영화 오디션에 매진했다.

#### 끝장을 보자는 결심이 결국 이제 막 통한 것 같다.

오래 이 일을 하고 싶다. 순간적으로 빛을 발하는 반짝 스타보다는 인성이 좋은 배우가 되려 한다. 영화 〈사냥〉(2016)에서 함께 연기한 안성기 선배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대선배인데도 지시하거나 권위를 드러내지 않고 나처럼 작은 역할을 하는 배우도 편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국민배우'구나 싶었다. 그 타이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국민배우라는 타이틀이 붙은 분이다. 선배님의 그 방식을 나도 따라 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더군다나 나보다 몸도 좋으시고 관리도 더 잘하셨더라. (웃음) 나도 운동은 계속하는데 요즘은 너무 힘이 든다. 옛날 생각하고 움직이면 담도 오고.

# 제자에게 "레슨비 안 줘도 되니 연기는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연기 전공이다 보니 아르바이트로 레슨을 하기도 했는데,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힘들더라. 내가 누구를 가르칠 정도의 실력이 되나, 그런 자기 검증이 생기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잘했던 운동으로 몸 풀기 그런 걸 가르쳐줬다. 선생님이라기보다 꾸준히 하다 보면 같이 연기하는 동료가 되겠지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자극도 되고. 그렇게 아이들과 이야기하다나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레슨비는 안 줘도 되고, 생각한 만큼만 달라고 했다.

#### 차기작 계획도 궁금하다.

드라마〈시그널〉의 김은희 작가와〈터널〉의 김성훈 감독이 만드는 넷플릭스 드라마〈킹덤〉에 출연한다. 지금 촬영 중인데 1, 2월경에 촬영이 몰려 있다. 〈암수살인〉에 살인범의 뒤를 캐는 형사 역할로 김윤석 선배와 같이 출연한다. 〈사바하〉는 신흥 종교단체를 파헤치 는 영화인데 스님 역할이라〈범죄도시〉의 위성락 민머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글** 이화정\_ 씨네21 기자 **사진** 손홍주 **사진 제공**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 시인박준

# 量子门上7世界红生年

문학의 위기, 나아가 책의 위기를 말하는 시대에도 꾸준히 사랑받는 작가는 있다. 주목할 만한 30대 시인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박준도 그중 한 명이다. 2012년 12월 출간한 그의 첫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는 10만 부가 넘게 팔린 스테디셀러이고, 2017년 7월 펴낸 첫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도 이미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혔다. 2017년 1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학 부문)을 수상하며 대중의 사랑과 문학적 평가를 동시에 거머쥐었다. 낮에는 출판편집자로, 퇴근 후에는 시인으로 살아가는 그를 카페 창비에서 만났다.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요즘을 흔히 '시를 읽지 않는 시대'라 말하는데, 작가님 시의 어떤 면이 독자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된 걸까요?

지난해까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가 1년 만에 국가에서 주는 상을 받으니까,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좀 어색하네요. 많은 분들이 제 시를 봐주시는 이유를 직접 말하려니 쑥스럽지만, 제가 파악한 세계의 보편성을 좋게 생각해주신 것 같아요. 전 습작생 시절부터 새롭거나 전위적인 시는 쓸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문인들도, 새로움을 추구하기보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보편성을 끊임없이 건드리는 분들이었고요.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 혹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새로움이라면, '나도 그런 적 있었어, 혹은 나도 그런 감정이 든 적이 있었어' 하고 얘기하는 게 보편성인데, 그 보편성이란 감수성의 연대라고도 볼 수있겠죠.







# 20살 때 처음으로 신춘문예에 응모했는데, 26살에〈실천문학〉을 통해 등단했으니 6년간 수많은 투고를 했겠어요.

치기만 앞선 때였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시를 잘 쓰는 것 같은데' 하는 자만심과 '왜 나를 알이주지 않나' 하는 울분이 가득했어요. 튀어 보이려고 분홍 색지에 궁서체로 출력해서 투고하기도 하고, 라디오에 사연 보내듯이 손글씨로 시를 써 보내기도 했고요. 김수영시인이 "시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라고 쓴 글을 곡해해서, 정말 온몸에 시를 쓴 적도 있었어요. 멀쩡한 노트가 있는데….

#### 등단 전에는 시를 쓰기 위해 그 시가 태어나는 공간으로 찾아가기도 했다고요.

그때는 시를 쓰기 전에 취재를 안 하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고시원에 대한 시를 쓰려면 고시원에서 두 달 살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에 대해 쓰려면 리어카 끌고 따라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태백에서 광부로 일한 분들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어요. 전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러 간 건데 그분들은 "기술 없으면 나이 먹어서 고생한다"는 식으로, 아버지들이 흔히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문득 시는 새로운 사실을 추적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보다여러 사실을 모으거나, 혹은 사실이 아닌 것들을 모아 진실의 끄트 머리를 좇아가는 게 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시를 쓸 때꼭 사실을 수집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놨어요.

####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는 시집 제목은 부산 영 도의 크레인 고공 농성장에서 싹텄다면서요?

시집엔 넣지 않은 시의 첫 문장이에요. 2011년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님이 한진중공업에서 크레인 고공 농성을 할 때였는데, 인터 넷 매체인 〈프레시안〉에서 그와 관련된 시를 청탁해왔어요. 작품한 편을 쓸 때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데, 다음날까지 써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촉박했지만 이 시는 크레인 밑에 가서 써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영도까지 찾아갔어요. 그게 〈당신이라는 약(藥)〉이라는 시였는데, 메시지가 너무 선명해서 시집에는 뺐지만 버리기 아까워서 첫 문장만 떼어 쓴 거죠.





# '당신의 이름'이 약과 같은 뜻이라는 설명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 같아서요.

김진숙 지도위원님을 보면서 '세상은 이미 병들었는데, 좋은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바이러스 백신처럼 세상을 버티게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감기약 사흘 치 지어주세요'라고이야기하듯 당신의 이름을 지어 먹었다는 문장이 나왔죠. 시집이나오니까 '당신의 이름'을 밥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되긴 해요, 밥이 약이니까. 소중한 존재가 사람들을 살게 한다는 뜻이니까.

이 시집은 마리몬드와 협업해서 한정판 리커버로도 제작되었죠? 목 련 일러스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님을 기리며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관여한 건 아니었고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아 진행한 작업인데, 좋은 의미지만 '할머님과 관련된 이미지를 내 시집에 피상적으로 써도 되나' 하는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저도 김복동 할머님과 작은 인연이 있더라고요. 2010년 친구들과 함께 일본에 가서 과거사 사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눔의 집에 허락을 받고 김복동 할머님의 다른 그림을 플래카드로 만들어서 신주쿠 한복판에서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할머님도 그 사실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표지를 볼 때마다 멀리서 격려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 산문집〈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제목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가 궁금합니다.

사인할 때 가끔 "울어요 우리"라고 써요. 그럼 제목과 이어져서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울어요 우리"가 되죠. 우리사회는 효용가치에 의해 돌아가니까,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행동을 안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으면 어때? 그래도울래' 이렇게 삐딱한 반발심이 있었어요. 울음이란 사람이 표현하는 감정 중 가장 진심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해요. 울려고 해서 울 수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려 해도 그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혹은 타인의 마음을 끌어들이기도 하죠. 긍정이든 부정이든 가장 무장해제에 가까운 행위가 울음이라고 생각해요.

# 이번 산문집은 구성이 독특한데요. 시 같은 글과 일반적인 산문이 섞여 있네요.

소설은 무조건 첫 페이지부터 읽죠. 그런데 시집은 순서대로 읽기도 하지만, 보고 싶은 곳만 읽다 덮어도 돼요. 소설이 '권당독서'라면 시집은 '편당독서'죠. 제 산문집을 엮으면서 편당독서가 이뤄지는 산문집을 만들자고 생각했어요. 한 편 보고 덮어도 되고, 다음 편을 바로 읽어나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와 글 분량도 고저를 두고

글과 글 사이에 시간을 줘서, 한 번에 다 읽어야 한다는 강박을 독자가 느끼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 현재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계시죠? 직장인으로서, 또 편집자로서의 삶이 창작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주로 시집을 기획하고 편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선배들의 시를 가장 먼저 보게 돼요. 현대시의 흐름에 대해 끊임없이 업데이트할 수 있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일단 시를 쓸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짧고, 낮에 장편소설 편집을 마치고 집에 가는 날이면 아무 글자도 보고 싶지 않아요. 도로표지판도 보기 싫고, 컴퓨터도 안 켜요. 하지만 전 의지가 굳건한 편이 아니라서 산에 들어가 집필에 몰두한다고 좋은 시를 쓸 것 같진 않아요. 출퇴근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 작품을 읽는 분들과 함께 부대끼며 같은 감정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최근 젊은 문인들을 보면 독립출판, 팟캐스트 등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가님이 참여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제가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데, 동네에 사는 친한 작가들이랑 그냥 술만 마시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낭독화를 하자고 뜻을 모았어요. 사는 곳이 고양시니까 '고양이 낭독회'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2017년 11월에 신용목 시인이 1회를 진행했고, 12월에 열리는 2회 낭독회는 제가 진행합니다. 근처 카페에서 시 읽고 음악 듣고, 와인 한 잔 정도 가볍게 마시는 소규모 행사예요. 그날 눈이 오면 좋겠네요.

박준 시인은 개를 키우지만 산책길에 만나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준다. 그가 돌보는 고양이는 3.5마리. 한 마리는 이틀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반 마리로 계산한다고 했다. 밥을 나르며 얼굴을 익힌 고양이들은 오랜만에 그를 보면 화를 내기도 한단다. 왜 이제 왔냐고, 어디 갔다 왔냐고. "관계라는 게 무섭다는 걸 고양이를 보면서다시 확인했어요"라며 웃는 시인의 얼굴 속에서, 일상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본다. 그 마음으로 빚은 시여서, 그의 책이 독자의 마음을 붙들고 울리는 게 아닐까. 가을경 출간 예정이라는 두번째 시집이 기다려진다.

글 고경원\_자유기고가 **사진** 오계옥, 백종헌 **사진 제공** 문학동네, 난다

지역문화진흥사업 간담회

# 지역문화, 지역 현장의 기초문화재단 직원으로부터 듣다



 
 진행
 김진환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차장

 참석
 박준영 도봉문화재단 기획홍보팀 팀장 김민정 성동문화재단 정책기획팀 안주용 구로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일시
 2017년 12월 12일 오후 3시 30분

서울문화재단 5층 회의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지역주체들과 함께 지역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나가는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처음 시작한 지역문화진흥사업은 외부의 예술가나 전문가들이 지역에 들어가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안 각 지역의 자원을 모아 새로운 만남과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나아가서는 함께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 자체까지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업과 다르다. 이 과정에서 기초문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2017년 사업을 돌아보며 현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만남, 네트워크, 그리고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기초문화재단 직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진환 최근 몇 년간 기초문화재단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요. 지역문화사업이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점들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치구들이 지역 내 인적자원들 과의 만남에서부터 변화와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처음부터 혼자 만들어낸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초문화재단 등 지역의 필요와 요구가 사업기획의 이정표가되어주었습니다. 기초문화재단이 지역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어떤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영 도봉문화재단은 올해 4월에 출범했는데, 거의 첫 사업으로 서울문화재단의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저희 팀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네트워크도 자원도 없는 상태여서, 자원들을 끌어 모으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결산하는 지금 돌이켜보니 사람을 만나서 문화농사를 지었더라고요. 재단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뭐가 다른지, 뭐하는 곳인지 물으시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보여줄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민이 느끼기에는 가장 가깝고 편하게 말을 걸수 있는 행정, 뭔가 처리해줄수 있을 것 같은 행정이고요. 하고 싶은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중간자, 매개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지역문화진흥사업이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사업영역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올해도봉구에 만화인마을이 생겼는데 입주작가 분들과 만날 수 있었고, 일반 주민, 직장인, 취업준비생, 육아맘들도 만날 수 있었고, 생활 예술동아리 분들과도 다른 관점에서 문화사업을 해볼 수 있었어요.



<u>김진환</u>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차장

갖가지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벌일 수 있어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김 민정 저는 성동문화재단 입사 6개월 만에 이 사업을 맡게 되었는데요. 사업을 시작할 때 재단 안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재단이 뭐지? 재단 사람들은 행정가야, 예술가야, 활동가야"라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농담으로 우리는 '반인반수'라고 하면서, 나가서는 활동가인데 들어와서는 철저하게 행정가여야 하고,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초가 광역과 구별되는점은 사람들에게 동네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동 단위로 사람들과 기억과 공간을 공유하는 작업을 깊게 할 수 있잖아요. '동네친구', '반인반수'라는 정체성으로 사업설명을 하고 진행도 했어요. 성수동의 경우 2016년에 그냥 한 번 모여보자고 예술마을 사업을 진행했는데 메아리, 반향이 부족했어요. 올해 지역문화진홍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지역 주체들과 공유하고 진행했더니 왜 모여야하는지가 쉽게 그려졌고 소통을 위한 든든한 텃밭이 처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김 진환 성동문화재단은 작년에 비슷한 콘셉트의 '예술마을만들기'를 하면서 지역 내에 공유된 경험이 있어서 올해는 계획 단계에서 부터 논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문화재단도 '반민반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특히 기초문화재단은 활동가로서의 역할

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주용 저는 구로문화재단에서 9년 일했는데요. 지역에서는 재단 이라고 하면 재정지원, 공간,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제일 많아요. 공공기관이라 구청과 약간 연관 있고 문화예술 쪽에 특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실망도 하세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이 나 정책과 예산의 범위에 한계가 있고, 몇 안 되는 인력이 행정가. 활동가, 기획자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마을사람들의 다각화된 욕 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문화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재정과 인프라가 뒷받침되 고 인력이 투입되면 복지, 보육 등 다른 분야까지 협업해서 엮을 수 있는데, 한정된 재원과 인프라 안에서는 재단 이사장이나 대표의 정치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적인 문화재단의 그림은 대동소이하지만 환경에 의해 변화하면서 맞춰가는 것 같고요. 지역에서 기초문화재단에 바라는 역할은 주민 들은 기본적으로는 좋은 공연, 작품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지역에 사는 예술가나 활동가는 매개자로서의 역할과 정책적으로도 전문 적이고 공무원보다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정가의 역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 니다.

김 진환 올해 지역문화진흥사업에서 필수사항으로 강조한 것이 GNC(Gathering, Network, Collaboration)였는데요. 행사 횟수, 관람객 수 등 강제하는 성과지표가 없어서 쉬울 수도 있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NC가 지역 내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는지,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주용 구로문화재단은 천왕동에 집중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천왕마을연합회라는 네트워크가 이미 있었어요. '예술마을만들기'를 위한 네트워크는 아니었던 거죠. 초반에는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예술가 분들과만 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마을 내에서 고민이 많았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기존의 네트워크나마을 생태의 방향성을 망치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이 들었던 거죠. 진행하다 보니 예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마을만들기가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문화예술 협의체가 분과처럼 활동할 것이 아니라 연합회 자체에 참여해서 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 네트워크에 들어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통 문



<u>안주용</u> 구로문화재단 문화사업팀

화였어요 많이 싸우는 것이 네트워크의 비결인 동네들도 있는데. 저희 천왕마을은 보다 점잖고 부드러운 방식의 소통을 선호했어요. 그것이 긍정적이라고 본 건. 다들 한마디씩 말할 기회가 있다는 점 이죠. 서로 바라는 것이 다르고 관심도 다르지만 누군가 얘기하는 것을 경청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중간에 태클 걸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부득이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웃으 면서 이야기하고 조율하고 풀어냅니다. 같이 일하면서 전혀 힘들 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커뮤니 케이션을 하는 문화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일 것도 같아요. 사람을 모이게 하려고 해도. 같이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서 로 다르기 때문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지난 몇 년 동안 의식하고 깨우친 건지 본능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서로 조심하는 느낌이 있었고 그렇다고 소극적이지는 않 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사업을 하면서 서로에게 많은 힘이 되었어요.

김 진환 이미 네트워크가 있는 곳에 들어갈 경우 주의할 점과 천왕 마을 분들의 소통 방식에 대해 말씀해주셨네요.

안주용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가는 게 쉬울지, 있는 네트워크

에 들어가는 게 쉬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만들어진 네트워크 와 함께할 때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도 아직도 알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위원장님이 목사이 신 것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몰라 서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요.

김민정 성동문화재단은 2016년에 예술마을만들기를 시범 운영하 긴 했지만 사업이 종료된 후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남이 계속 유지되진 않았어요. 처음 GNC 얘기를 들었을 때는 '모으고'부터가 막막했어요. 무엇 때문에 모이자고 해야 할지. 모임의 질감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에 초점을 맞췄어요. 프 로젝트 별로 매니저가 있었는데. 각자가 사업 이야기를 나눴던 누 군가를 다음 모임에 데리고 와서 지속적으로 모임의 크기를 늘려가 려고 했죠. 상반기를 지나면서 사업이든 만남이든 현미경으로 봐야 할 것과 망원경으로 봐야 할 것이 구분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 어요. 그리고 올해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도록 모임을 쫀쫀하게 가 져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PM, 주강사, 보조강사, 전시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으면 20명 정도인데요. 그분들이 내년에도 함께 갈 수 있는 리딩그룹이자 활동의 핵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매주 '화요 브런치 모임'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업 논의로 어떻게든 참석하 게 되었지만, 점차 사업보다는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아서 모이게 되었어요. 당장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는 조급함을 버리니, 보 다 쫀쫀한 네트워크가 가능해졌어요. 누구는 가죽공예를 하고, 신

<u>김민정</u> 성동문화재단 정책기획팀



발을 만들고, 시를 쓰는데, 모여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활 발하게 주고받더라고요.

김 진환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리딩그룹이 탄탄해야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박준영 저희도 초반에는 유명 만화가를 불러서 행사를 크게 터뜨려볼까 했는데 그건 지역문화진흥사업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들었어요. 결국 유명인 등에 의지하지 않고 사업의 취지만을 가지고 주민 30명 정도를 모았는데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분들을 시작으로 '도탐이'(도봉구를 탐사하는 이들)를 만들어서 팀 단위로 마을을 탐사하고 새로운 기획을 내봤어요. 지금은 3팀, 15명 정도가 남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인 게 첫 단계 같아요. 이분들이 동아리 형태로 진화하면 '마을지도 만들기', '주민참여제 예산으로 공간 만들기'와 같은 안을 실행할 수 있는 동력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만화인마을' 작가들이 주민의 사연을 만화로 그려보는 연계사업이었어요. 사실 그분들은 만화인마을에 입주해서 지역과 연계 없이 각자 작업만 하셨거든요. 도봉구 주민들과 같이 무언가를 하고 전시를 한 것이 의미 있었다고 좋아하셨던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김 전환 세 재단과 자치구의 상황이 모두 다르고, 또 그에 따라 전략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도봉구는 자원을 찾기 힘들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모아보는 것부터가 중요했고요, 성동구는 네트워크는 빈약하지만 주요하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 주체는 많은 편이고요. 구로구는 기존의 마을조직에 어떻게 잘 융화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셨습니다. 자치구별로 상황도 다르지만 지역문화사업을 대하는 자세, 적극성이나 방향성, 인력이나 예산 투입, 전문성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매달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지역 내에서 역량을 강화하거나 기초문화재단들이 지역문화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안주용 다른 지역에서 오프더레코드로 들려오는 안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간접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보통 강연에서는 성공사례만 이야기하는데 이면의 이야 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합니다.

박준 영 중요한 건 실패사례 같아요. 다들 어려움이 있는데 간담회에 오면 잘한 부분만 강조하고 싶잖아요. 담당자는 힘들어도 감추게 되고, 그러면 실마리가 안 풀리는 거죠. 우리끼리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김 진환 2018년에 많으면 4개 정도 기초문화재단이 더 설립될 예정 인데요. 기초문화재단이 계속 생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기초문화재단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25 개 자치구 중 2/3가량이 기초문화재단을 운영하면 서울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 생각하세요?

안주용 저희는 공공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하는 인력인데요. 구 로구만 해도 인구가 40만 명이고 문화관광과 공무원이 30~40명. 문화재단까지 합치면 100명 안 되는 인원이 다 커버해야 해요. 문 화 인력이 늘어나야 하는 차원에서 기초문화재단이 생기는 건 긍정 적이지만, 주민 공공서비스의 파이를 키우는 일확인 건지, 구청에 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유행처럼 따라서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습 니다. 항상 수익구조. 재정 악화 우려 얘기가 나오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윗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요. 지역사람들이 문화재단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가 장 안타까운 건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연계. 협력 가능한 다양한 분 야가 있는데,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문화 분야와 따로 돌아 간다는 점이죠. 문화 분야에 뜻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들 어와서 노력해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문화재단을 정치적인 창구로 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안팎에서 이루어져야 재단 구성원들이 힘 을 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 만 늘 원리원칙이 안 지켜져서 문제인 것 같아요.

김 민정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은 공유하고 있지만 조직, 사업 규모, 도서관 포함 여부, 공연장 수, 중심 가치에 따라 결이 매우 달라요. 기초문화재단이 늘어나면서 공론의 장으로 끌고 들어오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과 사업의 양태가 더 확장될 거라고 봐요. 필요성과 당위성,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있다면 기초문화재단이 늘어나서 25개가 되는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영 저희는 이번에 출범했는데 도봉구 문화체육과에서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벌이려는 의욕에 재단만 만들어놓으면 알아서 전문적으로 다 할 거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2018년도에는 동북 4구재단끼리 모여보자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25개 자치구가 공동의목소리를 낼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힘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 진환 지역문화진흥사업은 지역주체에 중심을 두고 움직이도록하는데요. 기초문화재단 직원들의 문화활동가 기질이 지역주체들

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을 포함한 지역주체와 호흡하고, 긴밀히 함께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것, 기초문화재단의 사명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재단이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그만큼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을 것 같아요. 지역문화팀에서는 지역문화진흥사업이 잠재적으로는 '따로 또 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 구에서 '따로' 하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같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시에 움직여서 힘을 보여주는 사업 또한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올해 지역문화진흥사업을 하면서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있을까요?

김 민 정 처음에는 내년에 예산의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 지역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업종료 후 주요 참여자들이 성동지역문화진흥의 비전을 함께 즐겁게 그려나가는 자리를 보자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됐죠. 1~5월에도 정기모임을 계속하자는 약속을할 정도로 GNC 성격에 부합하는 모임을 만든 것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박준 영 저희는 다양한 섹터들과 만나는 것이 초년사업에 꼭 필요 했어요. 아예 연이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여기저기 찾아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일을 사업구상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했어요.

안주용 축제 때 모여서 즐겁게 웃으면서 준비하고 진행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축제 준비와 평가 회의를 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을 이야기했지만 '이래서 안 좋았다'가 아니라,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희열을 느끼는 걸 표정이나 분위기에서 알수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것도 감사했고요.

김 진환 축제도 천왕마을연합회에서 원래 하던 프로그램인가요? 안주용 매년 했는데 올해는 문화예술 쪽 내용을 추가해서 '천왕마을 예술잔치'라는 부제로 했어요. 합창단 정기공연이나 어르신을 위한 실버축제도 만들었고요. 주민예술가가 강사로 나서서 교육 프 로그램을 진행했고,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분야 진로를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집 진환 문화예술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 당장의 성과라기보다는 마을 의제로 올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 같습니다.

안주용 저는 네트워크가 아직도 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그림이 있으면 밑그림인데 마을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군가의 깜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어야 해요. 네트워크를 한다고 해도 마을사람들이 다 모인 게 아니라 좀 더 관심 있고 의욕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거잖아요. 마을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의욕적인 분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기보다는 마을사람들 사이에 네트워 크를 더하고 결국 이상적으로는 마을구성원 모두 마을만들기에 참 여할 수 있을 때, 본인이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책임질 수 있을 때 지속 가능한 자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자 생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형태는 자생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집 진환 말씀해주신 부분이 자치구나 동 단위 지역문화사업의 비전 같은데요. 앞으로 지역문화사업이 이랬으면 좋겠다거나, 정책적으로 무엇이 뒷받침되었으면 하는지를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준영 '주민들이 주체성을 가지고'도 재단 직원의 입장에서 지역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획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올해는 협의체 안에서 다 같이 무언가를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냥 안으로 쑥 들어가서 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모임에서 차년도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계속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 같아요.

김 민정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치구의 예술생태계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성동구에서는 지역예술가들이 진행하는 워크숍을 지역문화진흥사업에 맞게 운영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과정까지 진행했어요. 고민은 지원금으로 공방에서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워크숍을 열었을 때 궁극적으로 동네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문화예술계의 자생력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모임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 한 축, 만남을 이어가면서 공통의 고민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오는 것 한 축이 같이 가야 해요. 지역문화진흥법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을 한계로 지적하는데요. 이 사업을 계기로 자치구 안에서는 어떻게 힘을 유지해가야 할지를 고민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안주용 지금 구로구에서는 '천왕예술마을만들기' 한 곳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은 각자의 모습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구성원이 다 다른 것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을사업에 있어서의 시작이자 끝아닐까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내가 선도하고 가르쳐줘야' 해, 문화예술은 이렇게 하는 거야,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기획이라고 생각하



<u>박준영</u> 도봉문화재단 기획홍보팀 팀장

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정책 아닐까요? 그렇게 하려면 정책 연구가 면밀히 이뤄져야 하고, 조사도 중요한데 인력도 없고 예산을 쓰지도 않아요. 준비가 부족한 채로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은 기획에 의해 정책을 만들고 진행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방법적으로는 자치구 내에서도 동에 각자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보조금 형태보다는 포괄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실제 하려는 것과는 별도의 무언가를 만들고 포장해야 하는 부분이없지 않은데요, 그런 것을 걷어내고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좀더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지원이 행정적으로도 이뤄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김 진환 지역문화진흥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많이 나와서, 귀납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주체로부터 나 오는 지지, 질적으로 다른 문화사업 네트워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리딩그룹에 의지나 열망, 능력까지 있 는 사람을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역 내에서 생존하고 활동 할 수 있는 예술생태계,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는 눈에 명확하게 보이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고 후 자는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리 전민정\_ 객원 편집위원 사진 서울문화재단

※ 토론 내용은 서울문화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며 [문화+서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니트, 시간과 추억을 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좋은 옷을 사서 사촌끼리 혹은 형제들끼리 물려 입히곤 했다. 옷을 빠르게 제작하고 빠르게 유통하는 '패스트패션'이 유행이 되어버린 지금, 예전처럼 옷이 누군가의 유산이 될 순 없을까? 니트 디자이너 이준아는 좋은 품질의 니트를 아껴 입고 잘 손질해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옷 자체의 스토리에 가치를 두고 작품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터닝포인트가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에게도 두세 번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중학생 때 접했던 만화였다. 동네에 하나둘씩 생기는 책 대여점에서 만화책을 빌려보는 것이 낙이었고, 신간 만화책을 사러 홍대입구에 위치한 한양문고를 가는 일이 기쁨이었다. 그러다가 만화부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코스프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코스프레'라 함은





- **1** 러플 모자, 편물, 울 혼방, 2017.
- 2 팔과 다리 워머, 편물, 울 혼방, 2017.
- **3** 머플러, 편물, 울 혼방, 2017.

만화나 게임의 캐릭터로 분장하여 즐기는 하위문화인데 요즘은 전 문적으로 의상이나 소품을 제작해주는 업체도 많지만 내가 막 시작 할 때는 개인이 직접 준비하고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흑역사'에 가깝지만,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인내, 만드는 것에 대한 기쁨과 나의 적성을 발견하게 해준 고마운 사건이기도 하다. 처음엔 옷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전무했기에 그냥 바닥에 천두 장을 놓고 옷 모양처럼 가위로 용감하게 잘랐다. 인체에 대한 이해나 옷의 디테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만든 거적때기 같은 형태에 불과했지만 매번 새로운 캐릭터의 옷을 만들 때마다 조금씩 기술과 노하우가 생겼다.

하굣길에 시장에 들러 천을 떼다가 주말 내내 손바느질로 옷을 만들어 일요일이면 행사장으로 '출동'하는 이중생활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되었다. 행사가 다가올수록 밤을 새는 날이 많아졌지만 잠을 못 자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때 패션 디자인을 해보

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다. 10대에 일 찌감치 인생의 직업을 결정하여 전문적인 학과를 선택하기보다는 어떤 분야를 가든 도움이 될 만한 경영학과를 권하셨고, 좋은 생각 인 것 같아 일단 대학은 경영학과로 진학했다.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 경영학과도 적성에 잘 맞았다. 회계는 힘들 었지만 나름 마케팅이나 재무관리, 특히 생산관리와 상법이 무척 재미있었다. 잘 적응하여 자연스럽게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옷을 만들던 기억이 흐려지던 대학 2년 차 어느 날, 아버지가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 아직 디자이너에 대한 꿈이 있다면 방학 동안 복장학원을 다녀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긴 인생, 기술 하나는 있어야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기에 나머지 인생을 위해 새롭게 도전했다. 막상 배워보니 적성에도 맞고 더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기회가 닿아 대학 졸업 후 뉴욕에서 예비 패션 디자이너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두 번째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다.

#### 소모품이 아닌 물려주고 싶은 유산

미국에 가자마자 니트에 관심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학교 커리큘 럼에 개설된 니트 수업은 4년을 통틀어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인 기가 많아 3. 4학년이 되어야 들을 수 있었다. 한 번에 6시간씩 8번 진행하는 수업이었는데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기엔 부족한 시간이 라 체험 수업에 가까웠다. 니트의 매력은 졸업 후 컨템포러리 니트 디자이너와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인턴으로 일하며 가을/겨울 캡슐 컬렉션을 잠시 도운 적이 있었는데, 뉴욕과 유럽 등지에서 활 동하는 니트 브랜드의 컬렉션을 보며 시장조사 및 영감이 되는 소 재를 찾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다. 그 이전엔 스웨터가 색상만 다르 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니 케이블의 크기. 위치, 모양, 조직의 색상, 배색, 기법, 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디 자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진으로 볼 수 없는 디테일은 직접 매장에 가서 하나씩 입어보고 만져보고 들춰보며 처음부터 다 시 공부했다. 어느 날은 상사가 빈티지 마켓에서 1980년대 명품 카 디건을 사왔다. 20년이 넘은 빈티지 카디건이었지만 60만 원대의 가격에 보관 상태도 양호해 새 제품 같았고 무엇보다 전혀 촌스럽 지 않았다. 오히려 요즘은 양산하지 않아 특별해 보였다. 그때부터 니트와 빈티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최근 대량생산된 옷들이 매주 새로운 제품으로 쏟아져 나오고, 싼

옷을 한 해 입고 버리는 것이 주된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아 옷이 소 모품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아쉬웠다. 옷에 담긴 스토리를 존중 하는 문화가 다시 살아나길 꿈꾸며, 1980년대에 한창 쓰였던 브라 더 수편기로 작업을 시작했다. 비싸지만 부드럽고 따뜻하며 유행을 타지 않는, 그래서 내가 입고 아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옷을 만들 고 싶었다.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미국에서의 일을 접고, 귀국하자 마자 니트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연습 삼아 내가 필요한 것 을 짜기 시작했다. 초기엔 작품 하나에 일주일이 넘게 걸렸다. 더 많 은 연습을 위해 성인복이 아닌 아동복을 만들기 시작했다. 함께 살 던 3살배기 조카가 모델로 딱이었다. 만들다 보니 아동복은 성인복 과 많이 달랐다. 성인은 색에 제약이 많아 기법을 교차 사용하여 디 자인의 디테일을 더한다면, 아동복은 보다 적극적으로 색을 활용할 수 있었다. 기법의 변화보다는 색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실험을 계속했다. 때문에 초기의 작품과 아동복을 만들기 시작한 시점의 작품은 꽤 다르다. 색을 많이 사용하면 2단마다 색을 바꿔가며 캐리 지(carriage)를 좌우로 밀어야 하는데 등과 어깨가 너무 아파 색을 바꿀 필요가 없는 단순한 작업을 할까 싶다가도 예전의 향수를 떠 올리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된다.

니트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초기 '피팅 모델'로 도움을 줬던 조카는 어느새 영감을 주는 뮤즈가 되었다. 처음엔 단순히 다양한 텍스타일을 개발하고 이를 제품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연구를 집중했다면, 요즘은 조카를 통해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을 반추하며 1980년대의 감성과 2010년대의 감성, 어린 시절의 나와 현재의 나를 떠올리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른이지만 어린이 같은 '어른이'인 내 모습을 주제로 실과 색을 이용해 끊임없이 놀이를 계속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당시 상사가 내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아직 미국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내 꿈을 펼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 돌아가야 했던 그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 당시엔 위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좌절의 순간도 앞서 벌어졌던 여러 번의 터닝포인트처럼 지금의 나로 이끌기 위한 또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기대해본다, 다가올 또 다른 터닝포인트를.

글·사진 이준아, 80, 90년대 볼 수 있던 편물기로 직접 니트를 짜고 작품을 만든다. Fabloop(때 블루프) 브랜드(www.fabloopofficial.com)를 운영 중이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부지 관련 논란

### 국립한국문학관, 부지나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문학계의 '숙원사업'이었다. 지 방자치단체와 연계된 개인문학관은 2000년대 이후 급증했지만, 국립문학관은 "민족사적인 관점에서 문학 사를 정리"(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한다는 점에서 개인문학관과 차별된다. 가까운 일본, 중국, 대만은 모 두 국공립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논의는 1996년 '문학의 해'를 맞아 처음 수면 위에 떠올랐으나, 이듬해 외환 위기로 유야무야됐다. 시인인 도종환 의원이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건립 여부를 질의하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된 국립문학관은 2015년 도 의원이 '문학진흥법'을 발의하면서 윤곽이 그려졌다. 2016년 문체부가 국립한국문학관 부지 공모에 나섰는데 24개 지자체가 신청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자 문체부는 부지 공모를 잠정 중단했다. 이후 문체부는 '문학진흥 TF'를 꾸려 용산공원 부지를 문학관 최종 후보지로 의결했다. 여기에 450억 원대라는 예산 규모까지 알려지면서 국립문학관의 그림은 더욱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물론 몇 가지 문제가 남았다. 먼저 건축물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반대다. 서울시는 용산을 생태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앞세워 국립문학관의 용산 터 잡기를 반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서울시,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문학관 부지문제를 논의하자고 나섰으나, 서울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애초 국립민속박물관의 용산 이전을 추진하던 문화재계, 국립문학관 유치에 미련을 두고있는 일부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최종 건립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 국립한국문학관을 둘러싼 근원적 질문들

부지 선정, 예산 확보 등을 둘러싼 논란에 가려진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







- 1 지난 11월 30일, 한국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등 10개 단체가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촉구했다.
- 2 문체부가 국립문학관 신축 터로 지목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 공지. 박물관 건물과 왼쪽의 미8군 골프연습장 그물망 사이 숲 공간이 예정 터다.

다. 바로 '문학이란 무엇인가' 혹은 '국립한국문학관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건물은 번듯하지만 파리만 날리는 일부 지자체 문학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국립문학관에 무엇을 담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한국문학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떠오른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우리 문학사는 캐넌(정전)이 확립돼 있지 않다"며 "당장 친일 경력이 있는 이광수, 김동인, 서정주를 어떻게 봐야 할지부터 문제"라고 말했다. 미당문학상, 미당전집 등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서 볼 수있듯, 근현대 문인들의 친일 혹은 독재 정권 부역 문제는 한국문학사의 아픈 고리다. 당장 '국립문학관' 전시실에 '춘원의 집필실'을 재현한다면 일부의 거센 반대가 나올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한국 근대문학사를 논하면서이광수를 제외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국립문학관이 한 정권의 치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시민계층의 정신사적 흐름과 연동하기 위해선 한국문학사를 규정하기 위한 오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염종선 창비편집이사는 "근대 이후 한국문단만 봐도 이념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문인들이 많다"며 "한국문학관은 작가별 '나눠 먹기'를 해서는 안 되며, 오직 당대 한국문학을 대표하고 민중의 삶과 생각을 잘 담아내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학'의 폭을 얼마나 넓게 잡을지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 국립한국문학관 은 근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을 아우르는 구성을 꾀하고 있지만, '문학관'의 건립이 철저히 '근대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 른바 '순문학'과 '대중문학'의 오랜 구분을 유지해야 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한국 젊은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문학'이라 할 만한 웹소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추리, 과학소설 등 장르소설을 얼마나 고려해야 할지, 명망 있는 대가 중심의 전시 구성을 유지해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 문학의 순기능을 되살려야

자료 수집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고전문학 판본의 경우 대부분 '문화재'급이어서 자료 수집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고전문학은 물론 대부분의 근현대문학 판본 역시 이미 민간 혹은 지자체 문학관의 소장품이라,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식 인천 한국 근대문학관장은 "지금은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용운의 <님의 침묵> 초 판본의 소장처조차 모호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자료 수집에 힘쓰되, 당장 자료 목록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립문학관이 날로 좁아지는 시민과 문학의 접점을 넓히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새삼스러울 만큼 한국사회에서 문학의 위상은 과거와 비할 데 없이 낮아졌다. 문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실추됐다거나 책이 안 팔려 출판사와 문학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점이 문제가 아니다. 아름답고 정의로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과 그에 연동한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졌다는 점이 문제다. 국립한국 문학관은 시민사회에서 문학의 순기능을 되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은 부지와 예산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글백승찬\_ 경향신문 기자



박정희 동상 설치 논란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시민을 위한 공공미술

11월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앞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동상 기증 증서 전달식'에서는 볼썽사나운 몸싸움이 벌어졌다. 박 전 대통령 탄생 100 주년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 '이승만·트루먼·박정희 동 상건립추진모임'은 기념 도서관에 4m 높이의 동상을 기 증하겠다는 증서를 전달했다. 반면 민족문제연구소 등 진보단체 회원들은 계단 아래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동상 건립에 반대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 이 벌어졌으며, 경찰은 양 집단이 붙지 않도록 '인간 펜 소'를 만들었다.

#### 박정희 동상 설치를 둘러싼 논란과 두 가지 안타까움

이날은 증서 전달식만 진행되었으며 완성된 박정희 동상은 경기도 내 한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가 시유지인 만큼,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가 박정희 동상이 세워질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소유 부지에 세워지는 조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박정희 동상을 둘러싼 진영 간의 다툼을 보면서, 먼저 떠올랐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누구보다도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고통을 당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역사와의 화해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짓기로 결정했다. 김 대통령이 기념사업회 명예회장까지 맡았다. 당시 고건 서울시장도 시유지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990년대 택지 개발로 조성된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에 기념관이 생긴 이유다.

기념관이 생긴 취지를 생각한다면 그곳에 동상이 하나 더해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동상 하나를 세우는 문제를 놓고 극단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관용이 없음을 보여준다.





- 1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이 열렸지만 동상을 펼침막으로 대체해 식을 진행했다.
- 2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 3 서울로7017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 <윤슬: 서울을 비추는 만리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상'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에 제작된 동상 역시 경북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있는 동상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한다. 높이는 4m,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형태일 것임에 분명하다. 대다수 조형 전문가들이 "커다란 동상은 북한이나 구소련 연방에서 많이 보던모습이 아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독립유공자나 사회명사의 자손들은 조상의 뜻을 기리는 동상을 세우

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상을 보면서 뜻을 기리기를 바랐을 것이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동상은 6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동상이라는 형태의 조형물은 현재 그 숫자도 많을 뿐더러 추모나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 박정희 동상 역시 과거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제작한 것이 아닐까.

#### 공공미술 관리를 통해 달라지는 서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심사하기 어려웠다.

공급자형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조형물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조례'는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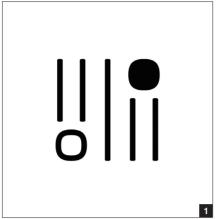
조례에 따라 동상이나 조형물 같은 미술작품을 심의 · 관리하는 서울시 공 공미술위원회가 출범했다. 그간 공공미술자문회의라는 비상설 기구가 있었으나 상설기구인 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위상을 대폭 강화했다. 디자인, 미술, 건축, 환경 분야 전문가 12명이 향후 서울의 공공미술 설치 방향과 미래 정책을 논의한다. 위원장은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교수가 맡는다. 서울시의 공공미술 정책과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대형 건축물 안팎에 세우는 조형물 기준도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시행으로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강화됐다. 그동안은 전문가 80명 풀에서 심의위원을 매번 순번으로 정해 심의했다. 이번에는 전문가 20명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 책임감을 갖고 심의하도록 했다. 미술 작품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준공 한 달 전이 아닌, 건축 허가를 내줄 때부터

서울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을 2016년 11월 시작했다. 전문가가 뽐내는 작품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공공작품을 선보이는 것이 목표다. 서울로7017 만리동 공원의 <윤슬: 서울을 비추는만리동>은 고가 하부에 설치한 지름 25m, 깊이 4m의 대형 광학렌즈 모형이다. 작품 안으로 들어가 바깥의 서울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다. 숙대입구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뒷길 청파로에 있는 185m짜리 벽화 <만경청파도>는 미술가들이 토박이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곳의 역사를 그린 작품이다.

작품 승인에 관여한다. 준공 막바지에는 준공 일자를 늦추게 할 수 있다는

서울의 얼굴은 이런 노력들을 통해 분명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치는 좋은 작품들과 함께 예술을 향한 시민의 관심은 높아질 것이다. 투명한 선발 기준을 거친 신진 예술가들의 작품이 많이 전시된다면, 공공미술의 저변도 확대될 것이다.

글 노지현\_ 동아일보 기자





연희문학창작촌, 문학웹진 <비유> 창간

### <비유>를 '비유'로 소개합니다

지난 12월, 연희문학창작촌에서 문학웹진 <비유>를 창간했다. 신인작가를 발굴하거나 기성작가의 좋은 작품을 소개하는 기존 문학잡지의 틀에서 벗어나, 읽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함께 문학의 과정을 고민하는 문학웹진을 표방한다. <비유>의 편집위원인 장은정 문학평론가가 문학을 접하는 색다른 방법을 제시할 웹진 <비유>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다.



#### 늘어났다 줄어드는 아코디언 같은 '비유'

웹진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해야 할지 회의를 거듭하던 날들이었어요. 팀원들 각자 웹진 이름을 5개씩 생각해 오기로 했고, 그렇게 30개가 넘는 단어들이 화이트보드에 차례로 적혔죠. 예쁘고 멋진 단어들이었고 저마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넌지시물었어요. "비상시 유리 깨는 방법'의 약어로, '비유' 어때요?" 누군가 그 말을 듣고는 대답했습니다. "약어의 뜻을 알려주지 않고 단어만 듣는다면 '비밀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풀 수도 있겠네요." 웹진의 이름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 가를 고민해야 했던 회의는 돌연 '비'와 '유' 사이에 숨어 있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유'라는 단어는 아코디언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단어의 쓰임에 먼저 매료되었

으므로, 우리가 매료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매력적일 수 없다고 믿으므로,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던 30개의 후보들을 지우고 웹진의 이름은 <비유>가되었습니다.

#### 씨앗과 열매를 올린 양팔 저울에 '비유'하기

이름을 정하는 과정 자체가 문학웹진 <비유>를 비유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비'와 '유' 사이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온갖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먼저 규정해서 내세우기보다, 손으로 만지며 마음대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점토처럼 재밌게 가지고 놀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글자들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을 시나소설, 동시와 동화, 희곡과 같은 특정한 장르로 분류되는 작품으로만 이해할수는 없었습니다. 문학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문학은 작품을 쓰는 사람들만이할 수 있는 특정한 무엇으로 좁혀지기 때문입니다. 멋진 문학작품을 흠결 없이 잘 익은 열매에 비유할 수 있다면 그 열매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제 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지와 줄기, 뿌리로 이어져 있고 그 뿌리 또한수많은 미생물들이 생동하는 흙으로 이어져 있기에 가능하겠지요.

물론 그 열매들을 따로 모아 소개하는 것은 문학잡지가 오랫동안 해온 중요한 일입니다. 웹진 <비유>에도 멋진 작품들을 찾아내 소개하는 '…(쓰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을 새롭게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창간되는 문학잡지라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양팔 저울에 비유한다면, 저울의 한쪽에 멋

- 1,2 웹진 <비유> 로고와 웹페이지 시안.
- 3 '…(쓰다)' 포스터.
- 4 웹진 기획회의 모습.



지게 익은 열매를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어떤 열매를 내어놓을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여러 씨앗들을 올려놓아 수평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하다)' 코너입니다. 기획자의 자리를 열어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운영되는 이 코너에서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 이외의 방식으로 문학적 실험을 하고자 하는 여러 팀의 글들이 연재됩니다. 시와 소설이라는 장르에 한정된 문학이 아니라 단 하나뿐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 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고 펼쳐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아마도 그런 과정속에서 어쩌면 <비유>만의 고유한 단어 사전을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생각했습니다. '?(묻다)' 코너는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의 의 견들이 서로 갈등하거나 충돌하면서 줄기와 가지처럼 끝없이 뻗어갑니다. 당신이 일상적으로 쓰던 단어에 이토록 다양한 대화가 숨어 있었다는 것에 깜짝놀라실 거예요.

####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비유'

<비유>가 문학잡지인 만큼 글자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디자이너를 만날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낮인사'라는 이름의 디자이너팀이 <비유>를 책장으로 디자인해주었습니다. '!(하다)', '…(쓰다)', '?(묻다)' 세 코너는 세 칸의 책장이 되었고, 각 글들은 저마다 한 권의 책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웹진 <비유>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서재인 셈이지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그동안 문학이 무엇이었을지 추측해봅니다. 문학을 즐겨 읽어온 독자라면 삶의 든든한 버팀목처럼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학창시절 시험을 치르기 위해 공부했던 과목으로만 문학을 경험했다면 지루하고 어렵거나 고리타분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요. 그동안 당신이 문학을 어떻게 이해해왔든 웹진 <비유>에 실린 글들을 읽는 동안 당신의 삶 면면을 상세히 들춰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비유>를 읽는 시간이 오롯이 당신을 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글을 읽는 동안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한 번 운영해보고 싶다거나 직접 연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웹진 <비유>는 읽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되고, 쓰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되는, 의자 바꾸기 놀이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곳이니까요. 놀러 오세요. 분명히 재밌을 거예요.

**글** 장은정\_ 문학평론가. <비유> 편집위원 **사진** 서울문화재단



고 보이스투디오 기획전시 지난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킬 지난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킬 지난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고 기획전시 지난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고 기획전시 기항지: a Port of Call>이 펼쳐졌다. 복서울미술관에서는 굿모닝스튜디오는 (기항지: a Port of Call>이 펼쳐졌다. 목서울미술관에서는 굿모닝스튜디오는 (기항지: a Port of Call>이 펼쳐졌다. 장실창작스튜디오 굿모닝스튜디오는 (기항지: a Port of Call>이 펼쳐졌다. 장실창작스튜디오구 모닝스튜디오는 (기항지: a Port of Call>이 필요 (이 필요) 의 필











"'기항지'는 항해 중인 배가 잠시 들를 수 있는 항구를 뜻하는 말로 각자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 잠깐 머무는 장소다. 최종 목적지는 아 니지만 긴 항해의 길에 반드시 필요한 이 장소는 항해의 과정과 그 경험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곳이다."

- 2016 〈기항지: a Port of Call〉 전시 서문에서 발췌

#### 서로의 바다에서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는 작가들

이번 잠실창작스튜디오 9기 입주작가전에 참여한 10인의 작가는 모두 각자만의 특별한 서사와 표현방식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전시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작가 김현우, 신동민, 정도운, 한승민의 발견이었다. 이 네 명의 작가는 발달장애가 있음에도 독특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자신의 재능을 거리낌 없이 화폭에 뿜어내고 있다.

김현우 작가는 자신이 바라본 시물과 풍경을 특유의 픽셀을 이용해 추상적인 이미지로 구성해낸다.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 등의 단서들을 그림에 포함시켜 이미지들을 재구성한다.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리거나,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 편지를 주고받고이를 작업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신동민 작가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작업하는데, 한 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완성하기 전까지 쉽사리 일어서지 않는다. 이국적인 색채와 과감한 구성을 캔버스에 담아내며, 두껍게 발라낸 물감의 느낌과 강한 색채 구성으로 표현한 동물들은 전시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 작가는 미술관에서 전시한다는 생각에 연신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포즈를 취해주었다.

정도운 작가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기항지〉전에 참여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유명인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일러스트처럼 그 림에 글을 섞어 표현하는데, 모든 정보 검색과 표현의 결말이 가족, 삶, 죽음 등 그를 둘러싼 타인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과 겹쳐진다. 이 번에는 평소의 드로잉, 마커를 이용한 일러스트 작업 이외에 석고 를 이용한 흉상. 부조 작업을 선보였다.

한승민 작가는 가족과의 여행,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 터, 책을 통해 접한 외부 세계를 특유의 시각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 내건 〈수행성〉은 아버지와 수족관을 관람했던 경험을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로 재구성해 그림으로 옮긴 작품이다. 자유롭고 쾌활한 그의 성격은 전시 현장에서도 도드라졌는데, 오프닝에 참석한 서울문화재단 주철환 대표 앞에서 당당하고 유쾌하게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번 전시에서는 화려한 색채를 분을 칠하듯 톡톡 찍어 표현하는 족필화가 김경아의 풍경화 작업, 사회적 관계의 맺음과 끊어짐에 대한 집요한 관찰을 바탕으로 변태적인 핑크빛으로 작품을 물들이는 김은설 작가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박주영 작가는 소리가 없는 시각적 경험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소리를 시각화하거나 소리 없이 시각으로만 전달되는 신체적 감각을 표현하는 등

- 1 전시에 참여한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들.
- 2 자신의 작업을 소개하고 있는 한승민 작가.
- 3 전시 전경.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절단된 자신의 오른쪽 다리에서 시작한 작업이 몸을 구성하는 세포로 옮겨와 세밀하면서도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세포의 세계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이동엽 작가, 어린 시절 잠자리에서 어머니가 읽어주던 전래동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전통가마 소성의 방식으로 거칠지만 따뜻한 느낌의 도예 작업을 보여주는 임병한 작가, 자신의 장애를 '콤플렉스'라 명명하며 의사소통과정에서 드러나는 신체적 장애를 작업으로 표현하는 이진솔 작가등의 면면을 이번 전시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다.

#### 영상으로 만나는 입주작가 10인의 진솔한 이야기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반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입주작가 개개인의 작업 이야기를 10편의 영상으로 담아냈다. 작가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출연 및 내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영상은 각각 2분 내외로, 작가들의 진솔한이야기와 친절한 작품 소개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10편의 영상은 서울문화재단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하다.

#### 잠실창작스튜디오 9기 입주작가 영상

김경아	http://youtu.be/ZN5DGRym2Zw
김은설	http://youtu.be/t3bBVDgJA10
김현우	http://youtu.be/NkFqtfDmGxs
박주영	http://youtu.be/bh4sU8zAmV8
신동민	http://youtu.be/TptS6q275C4
이동엽	http://youtu.be/ovFNrJxq8gA
이진솔	http://youtu.be/3FOpl5V6r_0
임병한	http://youtu.be/VBG1NOrj6XY
정도운	http://youtu.be/Tn-L—U8EmA
한승민	http://youtu.be/UMCr-nv14Rw



#### 청년공예작가 전시 프로젝트 <향유공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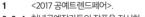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예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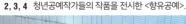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기 안84의 후배이자 개그우먼 박나래도 반한 김충재 작가 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잘생긴 '미대 오빠'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지 아는 이는 많 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박나래에게 자신이 빚은 도자 기를 선물하는 모습이 방송을 타면서 공예에 대한 관심 이 덩달아 높아졌다. 그의 인터뷰 기사를 하루 만에 40 만 명이 볼 정도로 '공예'가 유행을 타고 있다. 김충재 작가를 비롯해 국내외 1,500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며, 278 개 공예 기업과 5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전 〈2017 공예트렌드페어〉가 지난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코엑스 A홀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 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이 행사는 소비자와 접점을 확장하여 공예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개최됐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2017 공예트렌드페어〉의 주제는 'SMART × CRAFT'(스마트×크래프트)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람', '과정', '쓰임'을 주제로 공예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공개했다.

#### 공예, 젊은 예술가의 눈으로 바라보다

서울문화재단은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자는 취지 이래 〈청년예술 인 창작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 는 초년생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2017년에는 공공지 원금을 받은 적 없는 39세 이하 또는 데뷔 10년 이하 청년예술인(단 체)을 대상으로 약 900명(팀)에 56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공예로 특화된 창작공간인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청년공예작가 100명에게 정산 없이 활동 결과만 보고하는 조건으로 소액을 지원했다.

공예 분야에 선정된 58명의 작기들이 150여 작품을 전시한 〈향유공예〉가 지난 12월 8일부터 22일까지 서교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는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 더 나은 창작 활동을 위해 작가들에게 지원한 200만 원의 '시드 머니'에서 출발했다. 전시는 청년작가들의 취향이 돋보이는 〈향(香, 취향에 취하다)展〉(12월 8~13일, 씨알콜렉티브), 일상 속 유용한 쓰임을 제안하는 〈유(有, 유용한 일상)展〉(12월 13~22일, 산울림 아트앤크래프트), 가구작가 3인의 특별전〈공예에 반하다〉(12월 13~22일, 디티에이블)로 구성됐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청년 공예 작 가 이 문 혁 인 터 뷰

#### 핸디캡을 나만의 장점으로 승화시키다

특별전 <공예에 반하다>에 참여한 이문혁 작가는 고등학교 때까지 유도를 하며 국가대표까지 지냈다.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뒤늦게 공예작가의 길로 들어선 그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첫 전시를 열었다. 소품에 활용되는 레진이라는 소재를 가구 제작에 활용하는데, 그는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색약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았다"며, "나의 핸디캡이 오히려 나만의 색감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독창적인 색을 표현하는 작가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 공예 분야 선정작가 100명 중 도자, 금속, 섬유, 목공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공예작가 58명의 열정과 패기를 담기위해 기획된 <향유공예>에서 특별전에 참여한이문혁 작가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최초예술지원사업>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인가?

고등학교 때 유도를 했는데,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힐 정도로 유망주였다. 운동을 하다 예상하지 못한 허리 부상을 당했고,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포기했다. 이후 진로를 고민하게 됐고, 평소 손으 로 만드는 것을 좋아해 자연스럽게 공예에 관심이 가 중앙대에서 공예를 전공했다. 학교 수업과 현장 은 많이 다르다. 무엇보다 학교가 지방에 있어서 다른 작가들과의 교류가 쉽지 않았다. 이 지원사업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다른 작가들과 교 류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

#### 학교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가?

공예는 디자인과 미술을 기본에 두고, 색감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하지만 나는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색약이다. 그것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배우는 색채화 이론에서 애를 먹었다. 지금은 가구작가로 활동하는데 레진이라는 소재를 활용한다. 레진은 여러 개의 특수한 물질을 조합하여 독특한색깔을 창출하는 영역이다. 이런 나의 핸디캡이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됐다.

#### 색약 때문에 장점이 됐다는 의미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작품에는 다른 작품들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색감이 있다고 한다. 비슷한 유형 의 색깔도 아니며, 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색이다. 색약 때문에 나만의 색이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 자신의 작품 스타일을 설명해달라.

나는 국산 폐목을 활용해 가구를 제작한다. 주로 재활용 나무를 활용하는데, 갈라지거나 구멍 난 나무들을 좋아한다. 그런 깨진 부분을 레진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메운다. 이 레진을 위해 서로 다른 재료를 조합하는데 여기서 독특한 색깔이 나온다. 나의 작품은 재활용을 소재로 한다. 나무와 다른 재질의 소재가 만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고 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더 많은 작가들과 교류하고 싶다. 나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작가들과 어떤 장단점을 교류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또한 실생활에 유용한 가구를 만들고 싶다. 평범한 소반이나 가구라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면 좋겠다. 틀에 박한 작품이 아닌 나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

글 이규승\_ 서울문화재단 IT홍보팀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 평화문화진지

### 분단의 상징, 문화의 상징이 되다

분단의 상흔을 간직한 옛 군사시설이 문화창작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평화문화 진지가 그 주인공. 흉물로 남아 있던 대전차방호시설에 서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돌아온 평화문화진지를 소개한다.

- 1 휴게공간으로 이용되는 20m 높이의 전망대.
- 2 250m 길이로 길게 이어진 평화문화진지의 전경.
- 3 <APT 1탄\_아카이브 아트 프로젝트>전.
- 4 '내가 생각하는 평화'를 주제로 한 시민 참여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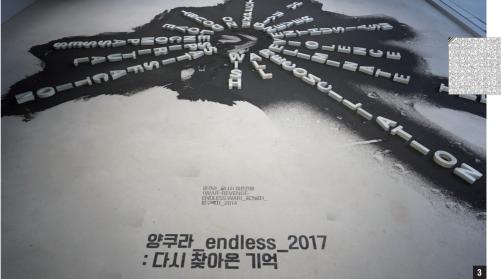


#### 문화로 도시를 지킨다

대전차방호시설이 있는 도봉구는 6 · 25전쟁 당시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를 거쳐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의 하나였다. 1970년 유사시 건물을 폭파해 적군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군사시설을 설치했고, 이를 위장할 목적으로 2층부터 4층까지 시민아파트를 세웠다. 노후화된 아파트는 2004년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됐지만, 1층의 군사시설은 10년 넘게 방치되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로 남았다. 이후 군사시설이라 마음대로 헐어버릴 수도 없던 이곳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심재생사업이 시작되었고 1년여의 공사 끝에 지난 10월 말 '평화문화진지'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가슴 아픈 분단의 상징이 평화와 문화의 상징이 되어 시민의 품으로돌아온 것이다.

연면적 1,902㎡의 평화문화진지는 지상 1층 규모의 건물 5개가 250m 길이로 길게 이어져 있다. 시민·창작·문화·예술·평화라이름 붙은 각각의 동에는 11개의 입주작가 스튜디오, 전시실, 다목적 공연장, 공유공방 등이 자리해 예술가에게는 창작의 공간을, 시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평화문화진지만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전시, 공연, 워크숍, 체험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개관을 맞아 12월 31일까지 〈APT 1탄\_아카이브 아트 프로젝트〉전이 펼쳐졌다. 옛 대전차방호시설이 간직한 시간의 흔적을 찾고자 기획된 전시로, 최정수, 강상우, 양쿠라, 홍남기 등 작가 4인이 평화문화진지의 장소성을 예술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시각화했다. 평화문화진지는 향후에도 대전차방호시설을 중심으로 공







간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아카이브 전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평화문화진지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 원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획전 이외에 상설 전시로 '내가 생각하는 평화'를 주제로 한 시민 참여 전 시를 연 것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였다

11개의 스튜디오에는 공모와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된 11팀의 작가들이 입주해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평화문화진지 곳곳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예, 커피 등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도 평화문화진지만의 특색을 살린 시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 공간은 시간을 기억한다

문화창작공간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은 평화문화진지는 그 와중에 도 대전차방호시설로서의 옛 모습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 전시실의 구조 또한 옛 모습을 그대로 살려 전시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몸을 숙인 채 어둡고 낮은 천장 아래를 지나가야 하고, 벽에 뚫린 사각형의 작은 구멍 아래로 '1970년 소총 저격 공간'이라는 글귀를 만나게된다. '1970년 병사 이동 통로'라는 설명이 붙은 지하 통로를 통과하는 일도 평화문화진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귀한 경험이다. 2동 창작동과 3동 문화동 사이에 있는 지하 벙커는 대전차방호시설이 세워진 지 47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다고 한다.

대전차방호시설의 옛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전시실 이외에 평화문화 진지를 찾은 시민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장소는 바로 동쪽 끝에 자리한 전망대다. 20m 높이의 전망대는 유사시를 대비한 감시용 군사시설로 지어졌으나, 평상시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개방된다. 도봉산을 배경으로 한 평화문화진지와 인근의 창포원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는 엘리베이터로 쉽게 오를수 있다. 전망대 앞에는 전차와 장갑차, 독일에서 기증받은 베를린 장벽 등이 전시되어 있어 이곳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평화문화진지가 자리한 도봉구는 서울의 중심과는 동떨어진 북쪽 끝에 위치해 한때 문화와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 들어 김수영문학관, 함석헌기념관, 플랫폼창동61 등이 문을 열고 한글문화거리 조성 등을 앞두면서 서울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평화문화진지는 도봉산, 중랑천, 창포원 등의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자연과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과거 나라를 지켰던 군사시설에서, 이제는 문화를 지키는 문화창작공간으로 탈바꿈한 평화문화진지에서 공간에 스며 있는 역사를 기억하며 문화예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 평화문화진지의 관람은 무료이며,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연다.

**글** 윤현영 **사진 제공** 평화문화진지

뮤지컬 <햄릿:얼라이브>와 음악극 <한여름 밤의 꿈>

### 겨울 극장가, 셰익스피어를 맞이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연극으로 인간의 본성을 해부했다는 평가를 받는 극작가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에 대한 연구는 셰익스피어가 다 해서 후대 작가들은할 일이 없다"고 찬탄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사랑과질투, 야망, 배신, 분노, 후회 등에 휩쓸리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날것 그대로 보여준다. 인간의 위대함과 무력함, 삶의 의미와 덧없음을 교차시키며 시대를 뛰어넘는 재미와 감동을 준다. 그가 서거한 지 40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작품들이 계속 무대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두편이 나란히 무대에 올랐다. 4대 비극 중하나인 <한여름 밤의 꿈>이다. 현대적 감각으로 꾸민 무대 위에 명작의 함을 되살렸다.



#### 가혹한 운명 한가운데서 고뇌하는 사람들

#### <햄릿:얼라이브> 2017. 11. 23~1. 28,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햄릿〉은 권력에 대한 욕망, 사랑과 배신, 질투와 복수 등 인간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걱정적인 감정을 담아낸 명작이다. 연출가 아드리안 오스몬드가 이를 뮤지컬 〈햄릿:얼라이브〉로 다시 빚었다.

햄릿의 아버지인 엘시노어의 왕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으면서 이야 기는 시작된다. 왕의 동생 클로디어스가 왕위에 오르고 햄릿의 어머니 거트루드는 클로디어스와 재혼한다. 햄릿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혼란에 휩싸인다. 어느 날 밤 햄릿의 눈앞에 아버지인 선왕의 혼령이 나타난다. 그는 자신을 죽인 클로디어스에게 복수해달라는말을 남긴다. 햄릿은 숙부가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을 은유한 연극을 펼쳐 보인 뒤 숙부의 잘못을 확인하고 복수를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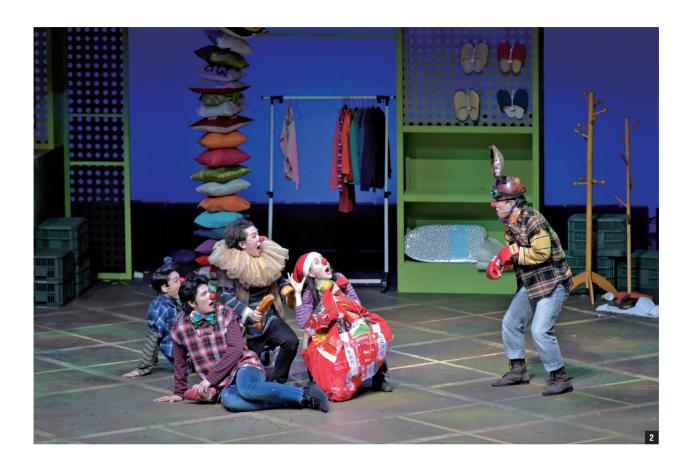
〈햄릿:얼라이브〉는 인물의 딜레마를 섬세하게 드러내며 관객을 인물의 내면으로 끌어온다.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성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견디는 것이 고귀한 일인가, 아니면고통의 바다에 맞서 싸우는 게 더 고귀한 일인가"를 고민한다. 권력을 얻기 위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은 클로디어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선 "내 욕망이 날 보며 조롱하고 비웃네. 빛나는 왕관을 쓴 겁쟁이는 정녕 누군가"라며 괴로워한다.

대극장 뮤지컬답게 화려한 무대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수십 개의 기둥을 반원 모양으로 세우고 기둥 너머에서 조명을 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장면 전환에 따라 커다란 나무나 서가 등을 등 장시켜 눈길을 끌고 물과 불. 총포 등도 활용한다.

성종완과 강봉훈이 작사·각색하고 김경육이 작곡한 노래가 극을 이끈다. 공연의 중심지 런던 웨스트엔드에서도 인정받은 배우 홍 광호와 떠오르는 신예 고은성이 햄릿을 번갈아 맡는다. 클로디어 스는 카리스마와 풍성한 보이스를 갖춘 배우 양준모와 임현수가 연기한다.

- 1 뮤지컬 <햄릿:얼라이브>
- 2 음악극 <한여름 밤의 꿈>





#### 여름밤 마트에서 벌어지는 꿈같은 소동

#### <한여름 밤의 꿈> 1. 5~1. 28,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어린이들은 고전을 어렵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고전을 어린이 눈 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각색한 공연은 아이들을 고전의 재미로 이끄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즐길 만한 공연을 찾는다면 서울시극단이 공연하는 〈한여름 밤의 꿈〉에 관심을 가져보자. 대사를 기본으로 하는 연극에 뮤지컬과 같은 음악적 요소를 결합한 음악극이다. 2015년부터 '쉽게 보는 셰익스피어 시리즈'를 선보인 서울시극단이 내놓은 세 번째 작품이다.

《한여름 밤의 꿈》은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중 가장 환상적이고 몽 환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엇갈린 사랑을 하는 네 남녀가 한여름 밤, 숲속 요정과 마법의 묘약 등 초자연적 힘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자 신의 배필을 찾게 되는 이야기다. 요정들이 사는 마법의 숲과 요정 들의 노래, 춤에 대한 상세한 묘사에서 셰익스피어의 시적 상상력 이 돋보인다.

이 작품이 음악극으로 다시 태어났다. 정극의 무게감을 덜고 유쾌

한 등장인물과 무대연출로 재미를 더했다. 극의 첫 배경은 한여름 밤 정전으로 아수라장이 된 마트다. 어둠에 놀란 아이는 자지러질 듯 운다. 아이를 달래려는 판매원이 책 코너에서 〈한여름 밤의 꿈〉을 빼 읽어주기 시작한다. 마트 곳곳은 책 속의 배경인 요정이 사는 숲으로 변하고 장난꾸러기 요정 '퍽'이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양한 노래. 유쾌한 안무가 곁들여진다.

《한여름 밤의 꿈》에는 유성주, 송종현, 강주희. 박진호 등의 배우가 출연한다. 오세혁이 각색하고 부새롬이 연출했다. 원작을 보다 사랑스럽고 재기발랄하게 재해석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한다. 재미를 강조했지만 극의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피해 어른도 흥미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제작진의 설명이다.

원어 대사로도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공연에 영어자막을 띄운다. 어린이와 학생 관객들에게는 공연 관람 전 공연 예절을 알 려주고,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담은 '스터디 가이드'를 제공한다.

글 마지혜\_ 한국경제신문 기자 **사진 제공** CJ E&M, 대전예술의전당

임흥순 개인전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과 2017 통일 테마전 <경계 155>, <더불어 평화>

### 분단을 사유하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상처와 고통, 갈등의 근원을 좇다 보면 궁극적으로 수렴되는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바로 '분단'이라는 현실이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숙고해 볼 만한 전시가 열린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 리는 임흥순 작가의 개인전,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에 서 열리는 통일 테마전이다. 전자가 개인의 드라마틱한 삶을 통해 분단의 처참함을 드러냈다면, 후자는 분단 70 년을 향하는 남과 북의 현재를 건조하게 바라본다.

####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는가?

임흥순 개인전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2017. 11. 30~4. 8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작가가 2년 만에 선보이는 전시회다. 작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분단이라는 질곡의 현대사로 일상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던 여성 4명의 삶을 보여준다. 독립운동을 했던 정정화 씨(1900~1991), 제주  $4 \cdot 3$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김동일 씨(1932~2017), 빨치산 생존자인 고계연 씨(85), 베트남전쟁 당시 위문단으로 참가했다가 현재는 이란에 정착한 이정숙 씨(73)가 그 주인공이다.

전시회는 43분짜리 영상작품이 중심이 된다. 당사자나 지인들과의 인터뷰, 실제 역사의 장소를 찾아 찍은 다큐멘터리, 작가의 상상력 으로 연출된 영상 등으로 구성됐다. 영상이 상영되는 전시장은 영









- 1 임흥순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 영화 스틸.
- 2 안승일 <백두산 천지>, 코팅 인화지, 200×480cm, 1999.
- 3 김정헌 <이상한 풍경>, 캔버스에 아크릴, 132×163cm, 1999.

화세트장처럼 꾸몄다. 마치 산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든다. 네 여성이 모두 '살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공통적인 사연이 있기 때문에 '산'을 주요한 장치로 사용했다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또 다른 전시장에서는 고인의 유품, 분단을 상징하는 설치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품을 감상하는 내내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끊임없이 맞닥뜨리게 된다. 임 작가는 "유령처럼 우리 사회와 무의식에 스며들어 있는 분단의 현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시 의도를 밝혔다.

#### 적대 대신 평화를

## 2017 통일 테마전 <경계 155>, <더불어 평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2017. 12. 5~2. 4

전시회는 두 개의 소주제로 구성된다. 분단의 상처를 직시하고 인식 하는 〈경계 155〉,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더불어 평화〉다. 155는 짐작하다시피 휴전선 155마일을 의미한다. 김정헌 작가의 〈이상한 풍경〉은 일상이 되어버린 분단을 그려낸다. 멀찍이 선 두 개의 철탑에 각기 태극기와 인공기가 걸려 있고 희뿌연 허공 아래 군사시설물이 놓여 있는 을씨년스러운 풍경은 기묘한 안도감을 준다. 양지희 & 다음학교 학생들의 작업〈나의 살던 고향은〉은 남쪽에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기억을 복원해 화폭에 옮겨 담은 작품이다. 〈더불어 평화〉에는 치유와 위로라는 주제를 의식한 듯 예술적 사명감을 드러낸 작품들이 많다. 눈에 띄는 소재는 민족의 동질감, 근원을 강조하는 백두산이다. 남북한 백두대간을 종주한 최초의 외국인로서 세퍼드, 사진작가 안승일이 각각 이를 화면으로 담아냈다. 오윤의〈통일대원도〉는 단군신화를 상징하는 푸른 곰과 붉은 호랑이,민중이 뒤섞여 신명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림이다.

전시회에는 모두 79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이 중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작품 15점도 포함돼 있다.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시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대가 아닌 평화를 사유해보자는 것이 이 전시의 취지다.

글 박경은\_ 경향신문 기자 **사진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책 <가인 김병로>와 <당신의 보통에 맞추어 드립니다>

###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책 두 권을 골랐다. 한 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들려주는 책이다. 한 책에서는 인생의 결기를, 다른 한 책에서는 세상을 향한 온기를 느꼈다.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두 책에서 얻었다면, 안일하거나 과장이 심한 독후감일수 있겠다. 대신 한 지은이의 당부는 꼭 전하고 싶다. "이 렇게 살다 간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의 삶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 小包 引用是 型印制 至至公 全所 下 数

####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생애

#### <가인 김병로> 한인섭 지음, 박영사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가인 김병로〉를 먼저 소개한다. 한 교수가 꼬박 10년을 매달린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1887~1964)의 전기다. 920쪽에 달하는 대작이지만 술술 위한다. 법학자의 문장이 이리 고울지 미처 몰랐다.

가인은 대한민국 법률의 초석을 닦은 법조계의 어른이다. 일제강점 기에는 이른바 '사상변호사'로 이름이 높았다. 가인은 1920년대 중 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허헌, 이인 등과 함께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했다. 사회주의 세력이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시절이었다. 1932년까지 그들이 맡은 사건 600여 건 중에서 7~8할이 사상사건이었다. 그렇다고 가인이 좌익은 아니었다. 안창호, 여운형, 박헌영, 조용하, 이재유 등 좌·우익을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가를 변호했다. 가인(街人)은 '나라를 되찾기 전에는 방황하는 거리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광복 이후에도 아호로 썼다.

가인은 이승만 정부가 임명한 대법원장이었다. 그럼에도 가인은 정부를 비판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요즘 헌법은 잘 계시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했다는 말이다.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는 대법원장을 향한 불편한 심사를 이승만은 이렇게 표현했다. 1957년 대법원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가인은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다. 1959년 경향신문이 폐간됐을 때 가인이 쓴 문장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앞으로 민주주의라는 말도 없을 것같이 생각된다."(740쪽)



가인의 삶은 선공후사(先公後私)가 아니라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정신으로 요약된다. 사생활이 아예 없었다는 뜻이다. 공사의 구분 이 유난히 엄격했다. 이를테면 선생의 가족 중에서 대법원장 관용 차를 타본 사람은 없었다. 손자(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역으로 복무했다. 책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판사는 가난해야 해. 판결문은 추운 방에서 손을 혹혹 불어가며 써야 진짜 판결이 나오는 거야."(547쪽)

한 교수는 "법률가로서 가인의 인생을 좇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법률가가 아닌 독자에게는? "가인처럼 살다 간 사람이 있 었다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의 삶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에 는 가인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주인공으로서의 답이었다.

#### 아주 작은 착한 일

#### <당신의 보통에 맞추어 드립니다> 고바야시 세카이 지음, 이자영 옮김, 콤마

〈가인 김병로〉가 한 위인의 생애로 돌아본 한국의 근현대사라면 〈당신의 보통에 맞추어 드립니다〉는 식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록한 일기에 가깝다. 지은이는 고바야시 세카이. 도쿄 헌책방 거리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열두 평짜리 '미래식당'을 운영하는 주인 장이다. 미래식당에는 '한끼알바'라는 별난 시스템이 있다. 식당에서 50분을 일하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권을 준다. '종업원의 밥'을 뜻하는 '마카나이'를 한끼알바라고 번역했다. 세카이는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한끼알바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한끼알바는 누군가와 관계를 잇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세카이의 말마따나 한끼알바는 또 다른 관계를 만들어낸다. 한끼알바로 얻은 식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서다. 식당 앞에 붙여놓은 식권을 떼 오면 누구나 공짜로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다. 무료 식권. 일본어로는 '공짜 밥'을 뜻하는 '타다메시'다.

무료 식권을 만든 이유보다 더 궁금한 건 무료 식권이 가능한 현실이다. 날마다 똑같은 사람이 무료 식권을 내밀면 어쩔 것인가. 실제로 한 젊은 여성이 15번 이상 무료 식권을 쓰기도 했단다. 그러나 세 카이는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책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그 자리의 성선설'이다. '최소한 미래 식당에 있는 동안만은'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191쪽)

미카나이와 타다메시의 관계는 특별하다. 남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번 밥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식당이 타다메시서비스를 시작한 건 2016년 1월이다. 그날 이후 식당에 무료 식권이한 장도 붙어 있지 않았던 날은 없었다. 세카이는 무료 식권을 "아주작은 착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밥을 공짜로 주는 식당이 흑지를 내는 이유'다. 실제로 미래식당은 흑자를 낸다. 큰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허덕이지는 않는다. 나는 이 대목을 높이 산다. 세상에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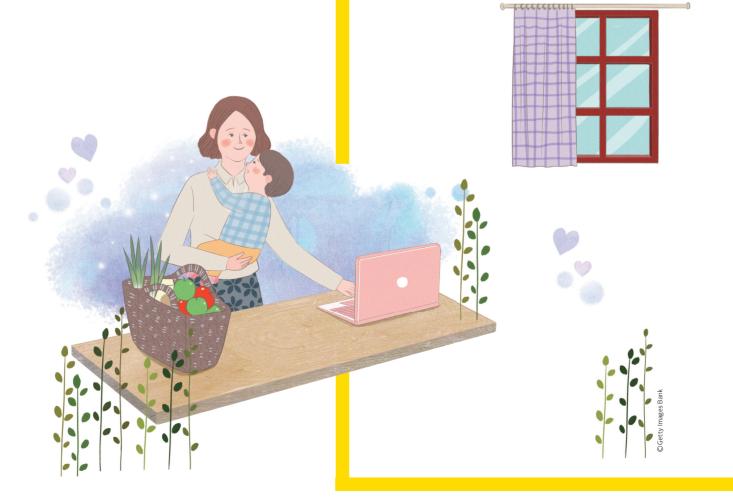
글 손민호,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문학, 공연, 출판, 여행 등 문화 영역의 취재가 20년 가까운 신 문기자 경력의 8할을 채운다. <문학터치2.0>, <규수올레>, <제주, 오름, 기행> 등의 책을 썼다. 사진 제공 박영사, 콤마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 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채 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페이스북 탭에 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문화+ 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의 현실 속에서 나만의 19호실을 만들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나를 위한 시간, 나만의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조용히 좋아하는 드라마나영화를 보는 시간,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줄 미처 몰랐어요. 최근 한 드라마에서 "자신만의 19호실이 필요하다" 는 대사를 듣고 정말 공감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행복하지만,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의 현실속에서 나만의 19호실을 만들 수 있을까요?





#### 19호실의 방어막



싱크대에 쌓여 있는 설거지, 세탁기 앞에 쌓여 있는 빨래들, 소파 위에는 북어처럼 바짝 마른 정리 안 한 옷

가지들. 재활용 배출일마다 미적거리다 못 버린 재활용품 쓰레기들 을 쳐다보고 있으면 '아… 나는 여기 안 산다.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 다. 나의 고향은 안드로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정 수입 없이 집에만 있는 '집사람'이자,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떼지 않은 새 옷 의 가격표시 태그처럼 죄책감이 덜렁 따라옵니다. 그리고 '품질표시', '취급주의' 태그처럼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까지. 누가 채찍 들고 서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런 반성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시간에 어느 하나의 노동이라도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하지만 나는 동거인들이 먹은 상을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재활용품 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리는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나는…' 하고 생각하다 말고, 브레이크를 겁니 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뭘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지? 뚜 렷한 명분이 없네요. 나는 시인이니까, 시를 쓰려고 태어났나? 그런 데 사람들은 왜 내 시를 안 읽지? 많은 사람들이 시를 안 읽는 것도 내 책임인가? 그러면 돈도 안 되고 인정도 못 받는 시를 나는 왜 쓰 지? 시 쓰는 것 말고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하 고 싶은 일은 뭐였지? 차라리 가사노동을 전문 분야로 인정하고 경 력과 이수과정을 학위처럼 대우하며, 정당한 급여를 일정하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혼 후 뚜렷이 내세울 경력 없이 가사노 동만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언젠가 어깨를 다쳐 손을 쓰지 못했을 때 진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손을 쓰지 못해 집안 살림은 엉망진창이 되자 극심한 우울감이 몰려왔어요. 그때 파견가사도우미(요샌 '생활컨설턴트', 혹은 '매니저님'이라고 합니다.)를 인터넷에서 신청했지요. 그분은 정말 손끝에 신이 내린 듯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가 막히게 저의 살림을 정돈해주고 가셨어요. 그분께 너무 고마워서 "매니저님 집은 늘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요"라고 하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은 살림을 이렇게 놓고 살지 않아요. 살림살이는 정리정돈하기 귀찮아서다 버렸어요. 식구 수대로 밥공기,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컵 몇 개, 뚜껑 달린 반찬그릇 몇 개만 있어요. 접시, 냄비 같은 것 절대 안 사고요. 집에 손님이 오면 밖에 나가 사 먹습니다. 그릇이 없어서 요리 못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해해요. 저는 살림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집 살림을 하면 아무도 나에게 돈을 안 주더라고요. 이렇게 남의 집 살 림을 정리해주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돈도 버니 좋 아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무릎을 탁 쳤지만, 왜 그런지 그분처럼 '미니멀라이프'를 실천하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가 '자기만의 19호실'을 가지려면 그분처럼 독하게 버리고 살거나, 돈이 많아서 가사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요. 아니면 가정 살림이 엉망이 되는 것은 집에 있는 여자의 책임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식에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내는 뭐든지다 잘하는 슈퍼우먼'이라는 소리도 듣지 않아야합니다. 그리고 내가하고 싶은 것, 좋아했던 것, 내가 사는 이유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야하죠. 이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인데, 여자에게는 쉬운 일이아니에요.

#### 판타지에서 빠져 나오기

밀린 가사노동 앞에서 제가 도망치고 싶어서 외우던 저 말들은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만의 19호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었을 뿐. 나의 19호실에는 물리적인 벽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19호실로 갈 수 있습니다. 외부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곳이면 거기가 바로 나만의 19호실이니까요. 그 최소한의 방어막이 있다면, 가정에서 먼 허름한모텔에 방을 잡을 필요도, 가족을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든 내 생각을 펼치고 싶을 때, 가사노동과 가족돌봄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여야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나를 부르지 않고 배고프면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며 자기가입고 벗는 옷을 스스로 빨아널고 찾아입을 정도는 되어야하겠지요. 생각해보면 가족구성원들이 조금씩 도와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가족에게는 엄마이자 아내인 내가 없으면 안된다는 판타지에서 빠져 나와야합니다.

답변 유형진\_시인. 2001년 <현대문학> 등단. 펴낸 시집으로 <피터래빗 저격사건>, <가 벼운 마음의 소유자들>, <피터 판과 친구들>, <우유는 슬픔 기쁨은 조각보>가 있다.

<sup>1)</sup> 도리스 레싱의 <19호실로 가다>에 빗대어 한 표현.

#### 한옥과 판잣집, 추억 속 서울의 주택가

# 卫皇吾 '내집'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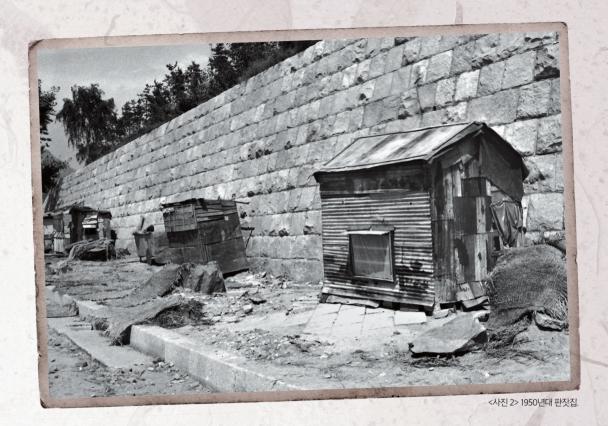
서울에서 길을 걷거나 차를 타고 달리며 주위를 둘러보 면 온통 아파트단지만 눈에 들어옵니다. 10년 전쯤 나 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54%를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율이 더 높아졌을 거고요.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한옥은 점차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처음 들어선 건 1956년입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조 금씩 다르지만 그 해에 을지로4가와 청계천4가 사이 중구 주교동에 세워진 중앙아파트가 한국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 파트는 한 기업의 사원용 주택이었고, 이후 충정로에 개명아파트가 지어져 처음으로 일반에 분양됐다고 합니다. 처음 등장한 단지형 아 파트는 마포구 도화동 마포아파트고요. 관리가 쉬운 아파트가 보급 되며 한옥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 시내 '도시형 한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2006년 자치구 10곳에 총 2만 2,672 채가 있던 한옥이 2014년에는 1만 1,195채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남아 있는 한옥도 주택 재개발 등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도시형 한옥

서울 시내 한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형 한옥은 1920~60년대 에 지어졌습니다. 1920년부터 1930년 중반까지 도심 주변부에 집단 적인 도시형 한옥마을이 조성됐습니다. 가장 먼저 보문동, 돈암동 등





돈암지구에 도시형 한옥주거지가 형성됐고, 1940년대에 들어서며 용두동, 제기동 등 용두지구에도 도시형 한옥사업이 시작됐습니다. 8·15광복과 6·25전쟁을 거치며 도시형 한옥사업이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돼 1960년대까지 꾸준히 도시형 한옥이 지어졌습니다. 마 당이 있는 도시형 한옥은 다른 가구와 섞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기적으로 지붕을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막을 씌워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진 1>은 1970년대 초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 모습입니다. 줄줄이 이어진 기와지붕이 운치 있어 보입니다. 또 장독대와 굴뚝이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즘은 북촌이나 서촌에 가야 이렇게 한옥이 밀집돼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서촌이 옛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이 지역의 건물 증·개축이통제됐기 때문이랍니다.

####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서울의 삶

6·25전쟁의 상처가 복구될 무렵인 1950년대 말부터 피란민과 이농 민 등이 서울로 몰리며 서울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도시 빈 민으로 전락한 이들은 서울 변두리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판잣집은 대부분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종이 상자와 양철, 함석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에도 서울에 판잣집이 많았습니다. <사진 2>는 높은 축대 밑에 판잣집들이 즐비한 모습입니다. 당시 정부는 서울 도심의 무허 가 거주민들을 외곽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1968년에 서울 에만 18만 채의 무허가 판잣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 정도가 그곳에서 살았고, 서울시는 성남시에 350만 평 규모의 위성도시를 건설해 35만 명을 이주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는 1971년까지 2 만 5,000여 가구, 12만여 명을 이주시켰습니다.

허름한 판잣집에서도 언제 쫓겨날지 몰라 불안에 떨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전셋값 때문에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울에서의 삶은 고달픕니다.

사진 김천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 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_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픽 디자이너 겸 웹툰 작가 조경규의 명보 사거리와 인쇄 골목

### 행복한 오감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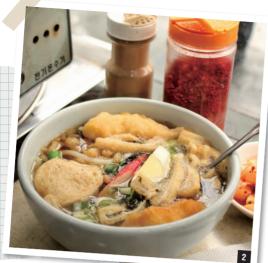
하루가 다르게 새 건물과 새 가게가 들어서는 홍대 주변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서울의 구시가를 더 좋아한다는 조경규 작가. 그중에서도 을지로와 충무로의 인쇄골목은 그에게 여러가지 의미로 소중한 동네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을지로3가역의 8번 출구다. 긴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왼편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동경우동 집이 사람들을 반기고 앞으로 조금 더 걸어가면 명보극장이 있던 큰 사거리가나오는, 그 동네를 소개한다.

- 1 2008년의 마지막 날, 서울 중구 명보극장 앞 사거리.
- 2 '동경우동'의 따끈한 우동.
- 3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인쇄 골목 풍경

#### 극장과 함께 기억하는 인생 영화들

독서실에 공부하러 간다고 집을 나와 영화 보러 시내의 극장들을 내 방처럼 드나들던 고등학생 시절,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의 얘기를 잠시 해볼까? 어느 극장을 가나 다 똑같은 영화를 여러 편씩 상영하는 지금의 멀티플렉스가 자리 잡기 전에는 특정 극장에 가야만 그 영화를 볼 수 있었다. 가령 <늑대와 춤을>은 대한극장에서만 상영하고, <분노의 역류>는 피카디리에서만, <장군의 아들>은 단성사에서만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보았던 특정 영화를 생각하면 자연스레 그 극장이 떠오르곤 한다. 지금도 <가위손>을 볼 때면 당시 아세아극장의 거대한 양철 간판과 눅눅한 담배 냄새가 생각나고, <터미네이터 2>와 <첩혈쌍웅>을 얘기하노라면 서울극장의 으리의리한 3관 시설에 놀랐던 기억이 떠오르는 식이다.

내게 명보극장은 샘 레이미의 <이블데드 3>와 이명세의 <첫사랑>, 그리고 장 자크 아노의 <연인>이다. 특히 과다한 노출 신으로 세간 의 화제였던 <연인>을 당시 미성년이었던 내가 약간의 변장과 연기 력으로 무사히 표를 사 담배 피우는 중년 아저씨들 틈에서 본 것은 큰 기쁨이었다. 그 후 명보극장은 멀티플렉스로 변신을 꾀했고 <매 트릭스 3>를 그곳에서 보았지만 영화도 극장도 기억에서 희미하게 자리 잡고 있다.





#### 초보 디자이너의 성장 터

명보극장을 끼고 왼쪽으로 돌면 본격적인 인쇄 골목이다. 인쇄용 종이를 가득 싣고 세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오토바이,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작은 인쇄소들의 커다란 기계들과 기름 냄새! 을지로의 극장만 다니던 내게 한 블록 너머 이런 곳이 있다는 걸 가르쳐준 사람은 1997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강미나 대리님이었다. 인터넷 방송과홈페이지 제작을 하던 회사로, 입사한 지 일주일쯤 후 내 명함을 만들러 같이 을지로를 찾았다. 종이집에서 명함종이를 구입하고 골목건너 마스터 인쇄집에서 명함을 인쇄하고 다시 건너편 후가공 집에서 타공을 하고 박을 찍었다. 국2절, 도무송, 중철, 오시, 하리꼬미, 오리꼬미, CTP, 싸발이, 하리돈땡 같은 듣도 보도 못한 글자가 적힌 간

판들이 가득한 좁은 골목이었다. 듣자 하니 이곳에서 영화관 리플릿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교회 주보도 만들고 상품 카탈로그에 동사무소 소책자, 공연 포스터, 학원 전단, 나이트클럽 전단까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종이 인쇄물 중 안 만드는 게 없다더라. 완성된 내생애 첫 명함을 받아들었던 그 골목 어딘가에서 강 대리님은 된장국이딸려나오는 생선구이 백반을 저녁으로 사줬다. 이곳에 오면 늘 먹는거라면서. 먹을 땐 특별한 줄 몰랐는데, 먹고 나니 속도 마음도 편안하니 기분이 좋았다.

2002년부터 프리랜스 디자이너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면서 다시 을지로 인쇄 골목을 돌아다녔다. 복잡하고 낯설었고 무엇보다 사람 을 만나는 게 무서웠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초보 디자이너가 딱 봐도 30년은 그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왔을 인쇄기사 분들 앞에서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낯가림이 심하고 붙임성 없는 나였지만, 그 래도 열심히 다니며 인쇄가 잘 나왔는지 확인하고 옆에서 물어보며 많은 걸 배웠다. 잘 나온 인쇄물을 퀵서비스로 업체에 보내기도 하 고, 명함이나 스티커처럼 작은 건 직접 들고 오기도 했다. 골목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고 기웃기웃하며 샘플도 얻고 여러 곳에 견적도 내 보고 그랬다. 그러면서 무뚝뚝하던 기사님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음료수도 건네받기에 이르렀다. 그것도 100% 과즙으로 말이다.

#### 여전히 반기는 오랜 맛집들

먹는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자. 아까 언급했던 8번 출구 앞 동경우동은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규모로 따끈한 우동과 카레를 내오고있다. 사거리를 지나 더 직진하다 오른편을 보면 진고개가 나온다. 오래된 한식집으로 양념게장과 갈비찜을 내는데,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갈비탕과 튀김정식도 맛있다. 다시 명보극장(현재는 명보아트홀)으로 돌아와 인쇄 골목인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풍전호텔까지 가면 오래된 닭곰탕집이 몇 있다. 거기서 중구청 방향으로 걸어가면 오장동 함흥냉면 골목까지 이르고, 충무로 방향으로 올라가면 길거리에서 생선을 굽는 백반집들도 만날 수 있다.

다행히도 이 동네는 큰 변화가 없다. 거리를 채운 작은 인쇄소들 간 판과 그 안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기계, 길거리를 오가는 오토바이 들, 오랜 식당들이 여전히 나를 반긴다. 지금도 인쇄일로 그곳에 가 게 되면 어떻게든 한 끼를 먹고 오려고 꼭 식사시간대에 가곤 한다.

글·사진 조경규\_ 그래픽 디자이너 겸 웹툰 작가. 눈으로 먹는 웹툰 <오므라이스 잼잼> 을 그렸다.



양희은의 <상록수>가 주는 메시지

# 是M 5岁生于1713131

김작가가 결혼했다. 김씨 성을 가진 작가가 아니라 필명이 '김작가'인 대중음악평론가다. 지난 11월 25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는 수많은 음악계 종사자들과 음악인들이 모였다. 홍대앞 인디 음악인들과 끈끈하게 어울려온 김작가의 결혼식에서 누가 축가를 할지가 관심사였다. 축가 1순위로 예상됐던 모던록 밴드 '언니네 이발관'의 이석원은 노래 대신 축사를 했다.

드디어 축가의 순서. 베일에 싸여 있던 주인공이 단상으로 나왔다. 양희은이었다. 그는 별다른 얘기 없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저 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 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상록수>였다. 결혼식장의 분 위기가 자못 숙연해졌다.

대개 잘 몰랐거나 알았어도 잊어버리기 십상이지만, 사실 <상록수>는 결혼 축가로 만든 노래다. <아침이슬>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김민기는 1970년대 중ㆍ후반 공장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중 이 노래를 만들었다. 인천 어느 공장 노동자들의 합동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한 노래였다. 이는 <거치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이라는 제목으로 1978년 양희은의 독집음반에 실렸다. 박정희 정권의 탄압 아래 활동이 불가능했던 김민기는 작사·작곡자로 친구 김아영의 이름을 적었다.

#### 축가에서 국민 희망가로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라는 마지 막 구절 때문인지 <상록수>는 1970~80년대 민주화운동 시위에서 널리 불렸다. 박정희 정권은 <아침이슬>처럼 <상록수>도 금지곡으로 지정했지만, '거리의 노래'로선 오히려 훈장과도 같았다. <상록수>는 1987년 6월항쟁 이듬해인 1988년 금지곡에서 해제되었다.

이 노래가 더 크게 양성화된 시기는 10년 뒤인 1998년이었다. 당시 IMF 사태로 실의에 빠져 있던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국민 희망가'로 발돋움한 것이다. 골프선수 박세리가 양말을 벗고 검게 탄 종아리 아래 새하얀 발을 드러내며 물에 들어가 공을 쳐내는 장면과함께 이 노래는 국난 극복의 상징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노래를 특히 좋아해 2002년 대선 후보 시절 기타를 치며 직접 노래하는 영상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노래가 다시 한 번 거리에서 거대하게 울려 퍼진 건 2016년 말이었다.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광화문촛불집회가 열리던 11월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 양희은이 깜짝게스트로 무대에 올랐다. 사람들은 술렁였다. 양희은은 <아침이슬>, <행복의 나라로>를 들려준 뒤 마지막 곡으로 <상록수>를 불렀다. 촛불을 든 100만 명의 시민들은 노래를 따라 불렀다. "깨치고 나아가끝내 이기리라"라는 마지막 대목이 빌딩숲 사이로 메아리쳤다. 당시현장에 있었던 내 가슴도 뜨거워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근혜 당시대통령은 탄핵됐고, 국민들은 끝내 이겼다.



1,2 2016년 11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서 <아침이슬>, <상록수> 등을 부른 가수 양희은과 광화문 일대를 밝힌 촛불 행렬.

#### 굴곡의 현대사를 돌고 돌아 제자리로

결혼식장에서 <상록수>가 울려 퍼지는 내내 환하게 웃던 신부와 달리 신랑의 얼굴은 짐짓 굳어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결혼식에 긴장해서였는지, 노래 자체가 주는 엄숙한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알수 없었다.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리라 짐작할 따름이었다. 하객들 역시 엄숙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자리에서 스테이크를 썰던한 지인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를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며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노래가 처음 생겨난 애초 취지로 불리는 걸 보며 연신 싱글벙글했다.

<상록수>가 끝났다. 사람들의 박수가 터졌다. 그제야 신랑은 환하게 웃었다. 양희은은 "이 노래를 발표한 이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불러본 건 처음이네요"라고 말했다. 그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이 노래가 불렸을 장면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수많은 신랑, 신부들 사이에서 노래가 처음 울려 퍼졌을 인천 어느 공장의 합동결혼식장, 유신 정권에 저항하는 거리 시위 현장, 1980년 5월의 광주, 1987년의 뜨거웠던 6월, 1990년대 후반 금 모으기 운동을하며 국난 극복의 의지를 다지던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적인당선, 나라를 망친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며 촛불을 밝히던 광화문광장… 그리고 다시 결혼식장. 노래에는 각기 타고 난 운명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상록수>는 굴곡의 한국 현대사를 돌고돌아 결국 제자리로 찾아왔다.

"저 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 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 기리라."

문득 노랫말을 되새겨본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가난하여도 손을 맞잡고 함께 헤쳐 나간다면 끝내 행복해지리라는 메시지가 이 노래에 담겨 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신랑, 신부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노래인 것이다. 김작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한다.

글 서정민\_씨네플레이 대표 **사진 제공** 한겨레

장일범의 음악 정원으로













베르디와 바그너의 베이스 오페라 아리아

# 추운 겨울을 푸근하게 감싸는 베이스 음성

2017년 겨울, 두 명의 걸출한 베이스가 한국에 서 공연을 가졌다. 베이스 연광철은 젊은 피아니 스트 김선욱과 함께 두 사람의 공통분모인 독일 음악, 그중에서도 독일 가곡으로 진중한 음악 세 계를 선보였으며, 르네 파페는 베르디와 바그너 라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굵직한 작곡가들의 작 품 중에서도 최고 깊이의 곡들만을 골라 콘서트 를 펼쳤다. 그동안 테너와 소프라노 중심으로 유 명하고 화려한 오페라 아리아들을 즐겨 감상했다 면, 이 겨울에는 푸근하고 자연스러우며 깊이 있 는 베이스 음성으로 오페라의 또 다른 면을 즐겨 보면 어떨까. 르네 파페의 공연 레퍼토리를 추천 곡으로 소개한다.

#### 각광받고 있는 베이스 성악가들

지난 2017년 12월 1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독일이 낳은 세계 적인 베이스 르네 파페의 독창회가 열렸다. 나는 이 공연에 해설로 참여했는데,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성악가의 공연에서 해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뉴욕 메트, 밀라노 라 스칼라부터 여름 바 이로이트 페스티벌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오페라 극장에서 대활약 중인 르네 파페는 1부는 베르디로, 2부는 바그너의 진중한 레퍼토리 로 채우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신만의 콘서트를 만들었다. 베르 디와 바그너의 대중적이지 않은 레퍼토리로만 독창회를 꾸미는 성 악가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르네 파페는 1813년 동갑내기로 오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자 지금까지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 치는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와 바그너의 레퍼토리로 음악회를 연 것 이다.

남성 음역 중 가장 낮은 베이스는 테너에 비해 인기를 얻기가 쉽지 않다.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모인 3 테너는 유명하지만 이후 핀란드 출신의 베이스들로 구성되었던 3 베 이스 콘서트는 기억하는 사람조차 드물다. 역사적으로도 테너는 다 른 성부에 비해 스타덤에 오른 이들이 많다. 남성 성역 중에서 매우 높은 하이 C(높은 도)까지 내는 테너는 보통 남성들이 내기 힘든 화 려한 고음 때문에 소프라노와 함께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선택된다. 그런데 베이스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힘들다. 무소르그스키의 <보 리스 고두노프> 같은 베이스가 주인공인 오페라를 제외하고서는 그 분량이 테너나 바리톤보다 상당히 적다. 때문에 베이스 중 글로벌 스 타가 탄생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탈리아 출신의 에치오 핀자와 페루 치오 푸를라네토, 불가리아 출신의 니콜라이 갸우로프, 보리스 크리 스토프 등이 큰 인기를 누렸고 요즘은 한국의 연광철과 독일의 르네 파페 등이 세계 최고의 오페라 무대를 호령하고 있다.











#### 르네 파페의 내한공연 레퍼토리

르네 파페가 내한공연에서 노래한 곡들은 작곡가가 30대, 40대, 50 대에 각각 작곡한 작품들로 채워져 시대적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 베르디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는 베르디가 40대에 쓴 작품으로,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나부코>, <아이다>처럼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작품은 아니지만 대단한 음악적 깊이가 있는 대작이다. 그중 베이스 배역은 딸마리아를 잃은 야코포 피에스코가 보카네그라를 원망하면서 부르는 아리아 <애처로운 마음이여>다. 읊조리는 듯한 저음의 탄식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베르디가 30대에 쓴 <맥베드> 가운데 방코의 아리아는 맥베드와 함께마녀들의 예언을 들었던 방코가 으슥한 밤길을 가면서 부르는 <하늘에서 그림자가 떨어져서>로 베이스의 매력을 명쾌하게 들려준다. <돈카를로>는 베르디의 오페라 중 가장 규모가 큰 작품이다. 스페인의황금시대인 무적함대 시절의왕 필리페 2세(오페라에서의 이탈리아이름은 필립포)가젊은왕비에게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다면서 세계통치자의 인간적인 고뇌를 첼로 독주와함께 부르는 비탄의 아리아 <그녀는 날 사랑한 적 없네>는 베르디 베이스 오페라 아리아 중

시켜주겠다는 작스의 노래는 바그너 음악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곡이다. 르네 파페가 마지막으로 부른 4부작 <니벨룽의 반지>의 <발퀴레> 중 보탄의 아리아 <작별이구나, 용감 하고 훌륭한 아가야>는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신의 계율을 깨뜨린 딸을 인간으로 지상에 내려 보내며 영원히 작별하는 내용이다. 신 보 탄의 딸에 대한 사랑이 담긴 곡으로 장대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라 이 겨울에 듣기에도 좋다.

글 장일범\_ 음악평론가, 경희대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겸임교수. KBS 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과 MBC <TV예술무대>를 진행하고 있다.



#### π-ville 99(파이빌 99)

# 크린테이나네으니

컨테이너는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석탄을 나르기 위해 마차 뒤에 연결하던 큰 나무상자에서 유래했다. 최초로 스탠다드형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56년 4월 26일 말콤 맥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쓴 유조선을 개조해 'Ideal X호'라는 컨테이너 선박을 만든 후부터이다. 20세기 해상 운송의 혁신으로 화물을 생산자에서 수요자에게 통째로 전달해주는 컨테이너의 시대가 열렸다. 표준화와 대량생산을 통해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만든 컨테이너는 이제 인간의 삶과 행위를 담아내는 목적으로 재활용된다. 표준화된 컨테이너 속다양한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작용하는 고려대학교의 'ㅠ-ville 99'(이하 파이빌 99)가 궁금해지는 이유이다.

#### 지속 가능한 건축

컨테이너는 오래전부터 공사 현장이나 농촌 등에서 임시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유행처럼 번진 컨테이너 건축은 좁은 공간과 낮은 천장 등의 단점보다는 운반이 쉽고 튼튼한 구조와 더불어 레고와 같은 모듈의 장점을 활용하여 독특한 장소성을 만들어낸다. 커먼그라운드, 언더스탠드에비뉴, 플랫폼창동61 등이 주목받고 있는 공간들이다.

컨테이너 건축은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다. 재사용이 가능하며 건설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건축이기에 지속 가능한 건축(sustainable architecture)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크다. 컨테이너 건축은 건축물을 해체 후 재조립하여 사용할 확률이 60%이며, 컨테이너의 스틸을 재활용할 수 있는 확률은 90%나 된다. 건설 공정의 약 80%이상을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의 폐기물이 상대적으로 적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도최소화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컨테이너 건축은 비용과 환경 측면에서의 장점 이외에도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상업공간이라는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컨테이너 건축의 경량성으로 인하여 건





- 1 다양한 색의 컨테이너들이 캔틸레버 형식과 함께 바깥 외벽의 철골 트러스 구조미를 강조한다.
- 2 주변 지형을 이용해 형성된 계단형 객석이 1층 카페와 연결된 외부공간을 때로는 조그마한 무대공간으로 바꾼다.
- 3 엇갈려 쌓은 스튜디오동은 다양한 사이 공간을 만들어 소통이 가능한 동선을 형성했다.
- 4 스튜디오동과 다목적동을 연결하는 브리지와 오픈된 테라스가 중첩되어 보인다.





축물의 이동이 용이하며, 짧은 시간 안에 조립과 해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빌 99를 설계한 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는 컨테이너의 가능성과 함께 다양한 적층방식을 통해 역동성과 창의성을 표현했다.

#### 새로운 재활용

파이빌 99는 창의적인 학생들의 개척자 정신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의미한다. 숫자 99는 파이빌이 위치한 도로의 주소다. 파이빌 99는 20피트의 컨테이너 19개, 40피트의 컨테이너 19개 등 총 38개의 중고 컨테이너로 이루어져 있다. 파이빌 99는 의도적으로 재활용 컨테이너를 사용했다. 친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성뿐만 아니 라 학생들의 새로운 콘텐츠를 공유하는 혁신적인 공간 디자인에 전 세계를 누볐던 컨테이너를 사용해 그 의미를 부합시켰다. 내부의 책 상과 의자들도 1950~60년대에 사용했던 것들을 재활용해 고려대의 역사를 닦았다.

파이빌 99는 스튜디오동과 다목적동으로 구분되며, 두 개의 동은 브리지를 통해 연결된다. 먼저 스튜디오동은 학생들의 창의적 작업을 위한 공간이다. 17개의 스튜디오와 벤처기업, 학생들의 창업동아리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벽돌을 엇갈려 쌓아 컨테이너의 사이 공간을 형성, 충분한 공용면적을 확보했다. 빈 사이 공간들은 복도와 계단,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해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동선을 구성했다. 모든 스튜디오 공간은 폴딩도어를 활용하여 공간의 확장 가변성을 높였다.

다목적동에는 2층의 대형 강의실과 함께 1층의 카페, 4층의 오픈 스



튜디오를 배치했다. 다목적동은 6m 캔틸레버 형식을 통해 활용도 높은 외부공간과 내부의 확장성으로 다양한 퍼블릭 공간을 제공, 여러 행사 및 활동을 수용하도록 했다. 여기에서 발생한 구조 문제는 바깥 외벽에 철골 트러스를 보강하여 해결했다. 1층의 카페는 캔틸레버 아래의 공적공간과 함께 주변 지형으로 형성된 자연스러운 계단형 객석을 통하여 조그마한 무대공간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대형 강의실은 4개의 컨테이너를 이열로 적층하여 쌓아 복층 높이의 개방 감을 확보했다.

파이빌 99는 표준화된 컨테이너들을 불규칙하면서 규칙적으로 적 층하여 새롭고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파이빌 99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파이빌 99뿐만 아니라 2차, 3차의 파이빌을 계획 중에 있 다.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기다려본다.

글·사진 이훈길\_ 천산건축 대표. 건축사이자 도시공학박사이다.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 사진, 일러스트, 칼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도시를 걷다\_사 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건축, 소통과 행복을 꿈꾸다>가 있다. 영화 <패터슨>과 시인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 到金型型的五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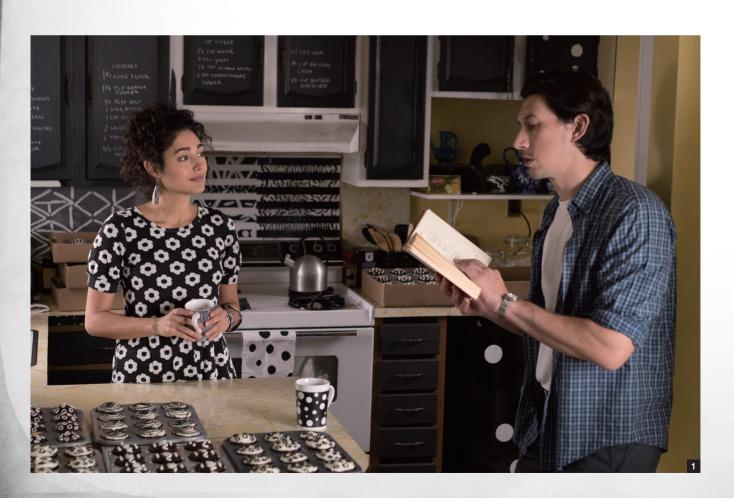
12월 21일 국내 개봉한 집 자무쉬 감독의 영화 <패터슨>은 패터슨이라 는 도시에 사는 패터슨(아담 드라이버)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다. 그의 삶은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듯 수많은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범한 패터슨의 일상에서 조금 남다른 점은 그가 시를 쓴다는 것이다. 도시 패터슨을 순환하는 23번 버스를 운전하는 패터슨은 늘 가지고 다니는 노트에 시를 쓴다. 집에서 자주 쓰는 성냥,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감정, 버스에서 엿들은 승객들의 대화, 그가 몸담고 살아가는 도시의 풍경은 패터슨이라는 필터를 거쳐 새로운 언어로 재구성된다.

#### 예술과 일상은 맞닿아 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일터에 간다. 업무를 마친 뒤에는 반려동물을 산책시키고 단골 바에 들러 사람들을 만난다. 집에돌아온 다음에는 하루의 일과에 대해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다 잠이 들면,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

화려한 시각효과로 무장한 블록버스터영화들이 극장가를 점령한 요 즘, 짐 자무쉬 감독의 <패터슨>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한 영화다. 드라마틱한 사연이나 극단적인 사건은 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패터슨이라는 남자의 일상이 펼 쳐질 뿐이다.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없는 무언가를 꿈꾸며 극장 을 찾는 관객들은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일상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극장에서까지 봐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예술과 가장 평범 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이 사실은 맞닿아 있다고 이야기하는 데 <패 터슨>의 비범함이 있다. 별다를 것 없다고 생각되는 누군가의 일상









1, 2 영화 <패터슨>의 한 장면. 3 <패터슨> 포스터.

은 사실 수많은 차이로 구성되어 있다. 늦게 일어나고 싶은 날도 있고, 버스가 고장 나 일정이 변경되는 날도 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도 찾아온다. 끊임없는 반복속의 적지 않은 변주. 이 일상의 리듬감이 곧 시의 운율과 다르지 않다고 영화는 말한다. 인간의 일주일이 7연으로 쓰인 시(詩)이며 매순간이 연을 이루는 행과도 같다면,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일상을 질료로 삼는 예술가들이다. 시를 쓰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패터슨도, 컵케이크를 굽고 기타를 치는 그의 아내 로라(골쉬프테 파라하니)도, 패터슨의 단골 바에서 매일 밤 도시의 역사를 들려주는 주인장도, 이영화를 보는 우리도, 누구와도 같지 않은 일상의 예술작품을 만들어나가는 중인 것이다.

#### 일상의 사건을 소재로 시를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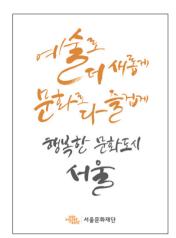
영화 <패터슨>을 보면 궁금해지는 이름이 있다. 시인을 꿈꾸는 패터 슨의 영웅,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다. 이름만 들어도 시인의 운명을 타고 났으리라 짐작되는 윌리엄스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미국 뉴저지주 패터슨을 기반으로 활동한 시인이다. 과장된 상징주의를 배제하고 순간의 포착과 관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객관주의' 시로 이름을 알린 그는 시집 <브뢰헬의 그림, 기타>로 1963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짐 자무쉬 감독은 그를 존경하는 마음에 20여 년 전 시인이 살았던 도시 패터슨을 당일치기로 찾았고, 도시의 명소인 '그레이트 폴스'(영화 속 패터슨은 도시락을 먹으며 주로 이곳에서 시를 쓴다.)에 앉아 시를 쓰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한다.

영화 <패터슨>의 주인공 패터슨과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일 생은 닮은 점이 많다. 버스 운전기사라는 직업과 시작(詩作)을 병 행하는 패터슨과 마찬가지로 윌리엄스에게도 평생 소아과 의사라 는 직업이 있었다. 시인으로서의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에게 영 감을 주었던 존재는 현대 도시에 살고 있는 노동자와 아이들, 그리 고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들이었다. 완벽한 예술품 을 추구하는 작가들이 종종 간과했던 일상의 아름다움을 그는 놓치 지 않았다. 윌리엄스의 대표작 중에는 짐 자무쉬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5권짜리 서정시집 <패터슨>(1946~1958)이 있다. 윌리엄스의 자 전적 경험을 반영한 가상의 인물, 패터슨 박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 시집은 패터슨이라는 도시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윌 리엄스는 패터슨을 다룬 신문기사,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지, 산문, 역사적 사실 등을 시의 소재로 활용한다. (윌리엄스를 닮은) 패 터슨 박사의 눈으로 바라본 도시 패터슨은 생명력이 넘치며 금방이 라도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친근함을 띤 도시다. 그건 이 도시를 대 하는 윌리엄스 그 자신의 태도이기도 할 것이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 한 주의 끝을 마무리하는 일요일, 패터슨은 전날 밤 일어났던 사건으로 상심한 채 폭포를 찾는다. 그런 그에게 일본에 서 왔다는 시인(나가세 마사토시)이 다가와 묻는다. "선생님도 패터 슨 출신의 시인인가요?" 시인이 아니라 버스 운전기사라고 답한 패터는에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정말 시적이에요. 이건 윌리엄스의 시가 될 수 있겠어요." 일상은 그렇게 예술이 되고, 예술은 그렇게 일상이 된다.

글 장영엽\_씨네21 기자

# **2018 CALENDAR**



####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남산창작센터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시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SFAC 문화철도
- SFAC 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 MON TUF WED

1

- 2017 통일 테마전 <경계 155>, <더불어 평화>(~2.4)
- 국립극장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 곽수연 개인전 <행복 플러스 2018 展>  $(\sim 2.23)$
- 임흥순 개인전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4.8)

- 시민청 개관 5주년 기념전시 <오감만족>(~1.31)
- The Voice of DUO Concert 신년음악회

- 2018년 새해인사 나눔음악회
- 2017 창작산실 뮤지컬 <카라마조프>  $(\sim 1.14)$

- <김수지 바이올린 독주회>
- KCO(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트로이카콘서트 시리즈 17
- 전시 <김혜연 : 난 니가 참 좋다>(~1.25)

-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MAP <캔위 토크 어바웃 MAVO? / 직선은 원을 살해하였는가, 혹은 Z白호와 버터플라이 사이의 코스들>(~1.14)
-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1.11)
-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2.25)

- 한남 아트 프로젝트 <청춘락희>전(~1.16)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새해 국악한마당>(~1.17)
- 전시 <손끝 붓끝에서 피어나는 꽃>  $(\sim 1.16)$
- 넌버벌 코미디 <옹알스>(~2.4)

- 서훈과 함께하는 신나는 음악여행 <브라보 감정놀이 오페라>
- 제14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1.28)

22

15

- 2018 신년음악회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
- 전시 <김종범: 라운드 라운지>(~1.22)

-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
- 전시 <Emergent Property>(~1.29)
- 2018평창겨울음악제(~1.31)
- 연극 <네버 더 시너>(~4.15)

בהיסורה

-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MAP <팬텀서비스(vol.1)>(~2.1)
- 전시 <혁명은 TV에 방송되지 않는다: 사운드 이펙트 서울>(~1.31)
- 뮤지컬 <킹키부츠>(~4.1)

1/6	3600			60.25
1336				
934				
684			9285	
923				
233		San		
k Die				
200				
325				
1523				
1500				

THU	FRI	SAT	SUN
4	5	6	7
<ul> <li>&lt;사진을 위한 사진전: Post-Photoville 2017 #44&gt;(~1.4)</li> <li>전시 &lt;마이클 케나, 펜티 사말라티-Snow Land&gt;(~2.25)</li> <li>어린이 참여 놀이극 &lt;오즈를 찾아서&gt; (~4.1)</li> </ul>	<ul> <li>▼전시 &lt;시발(始發):서울&gt;(~1.5)</li> <li>▼창작뮤지컬 &lt;드로잉&gt;(~1.6)</li> <li>가족음악극 &lt;한여름 밤의 꿈&gt;(~1.28)</li> </ul>	■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MAP 〈별빛위로 Starlight Consolation〉 ■ 2017 서울연극센터 유망예술지원 NEWStage 선정작 <레일을 따라 붉은 칸나의 바다로〉(~1.6) ■ 뮤지컬 <천로역정〉(~3.3)	<ul> <li>■ 뮤지컬 &lt;그 여름, 동물원&gt;(~1.7)</li> <li>■ 전시 &lt;문의 공간, 문의 장면&gt;(~1.7)</li> <li>■ 뮤지컬 &lt;바람이 불어오는 곳&gt;(~1.7)</li> <li>■ 전시 &lt;일상의 예술 2017&gt;(~1.7)</li> <li>■ 뮤지컬 &lt;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gt; (~1.7)</li> </ul>
11	12	13	14
■ 2018 음악춘추 우수신인데뷔연주회 ■ 김이린 개인전 <나무, 안으로 들어오다> (~1.11) ■ 구혜선 개인전 <미스터리 핑크>(~2.5)	■ 2017 서교예술실험센터 유망예술지원사업 선정작가단체전(~2.4) ■ 2017 서울연극센터 유망예술지원 NEWStage 선정작 <누구의 꽃밭>(~1.20) ■ 아트앤아티스트 데이 <오페라카니발> ■ 전시 <w쇼─그래픽 디자이너="" 리스트=""> (~1.12) ■ 가족 뮤지컬 &lt;캣 조르바&gt;(~2.25)</w쇼─그래픽>	■ 시민청 개관 5주년 기념 특별공연 ■ 시민청 개관 5주년 기념행사 <오감만족-오백인전>(~1.31) ■ 국립국악원 <2017 겨울국악동화>(~1.13) ■ 전시 <아이러니 & 아이디얼리즘>(~1.13)	<ul> <li>■ 뮤지컬 &lt;광화문연가&gt;(~1.14)</li> <li>■ 전시 &lt;기억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gt;(~1.14)</li> <li>■ 연극 &lt;발렌타인 데이&gt;(~1.14)</li> <li>■ 연극 &lt;백석우화&gt;(~1.14)</li> <li>■ 뮤지컬 &lt;투모로우 모닝&gt;(~1.14)</li> </ul>
18	19	20	21
■ 서울 살롱 뒤 쇼콜라 2018(~1.21)	■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향이 함께하는 <2018 신년음악회> ■ 뮤지컬 <세븐>(~1.21)	■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MAP <서른즈음에 산티아고>	<ul> <li>■ 뮤지컬 &lt;시스터 액트&gt; 내한(~1.21)</li> <li>■ SeMA 벙커 역사갤러리 특별전 &lt;암흑 물질&gt;(~1.21)</li> <li>■ 뮤지컬 &lt;여신님이 보고 계셔&gt;(~1.21)</li> <li>■ 연극 &lt;원맨쇼&gt;(~1.21)</li> <li>■ 전시 <geeky :="" land="" 괴짜들="" 나라의="" 이상한="">(~1.21)</geeky></li> </ul>
25	26	27	28
■ 연극 <서툰살인>(~2.28)	■ 2017 서울연극센터 유망예술지원 NEWStage 선정작 <중립국>(~2.3) ■ 제9회 ARKO한국창작음악제-양악부문 ■ 전시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한국・일본·중국>(~3.18) ■ 전시 <댄플래빈, 위대한 빛>(~4.8)	■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MAP <목욕합시다>(~1.28) ■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MAP <미세인간>(~1.28) ■ 2018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1.28) ■ 뮤지컬〈공룡이 살아있다〉(~3.4)	<ul> <li>■ 2017 어른이 뮤지컬 &lt;난쟁이들&gt;(&lt;1.28)</li> <li>■ &lt;돈 많은 백수가 되고싶다&gt;展(&lt;1.28)</li> <li>■ 뮤지컬 &lt;빈센트 반 고흐&gt;(&lt;1.28)</li> <li>■ 뮤지컬 &lt;햄릿:얼라이브&gt;(&lt;1.28)</li> <li>■ 뮤지컬 &lt;캣츠&gt; 내한공연 앙코르(&lt;2.18)</li> </ul>

wed\_03



#### 2017 창작산실 뮤지컬 <카라마조프>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각색한 작품으로, 2017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되어 초연된다. 공동연출인 박소영과 허연정을 비롯해 주목받고 있는 신예 창작진과 다양한 뮤지컬 작품에서 활동하며 실력을 쌓은 출연진이 만났다.

**일시** 1월 3일(수)~14(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2시·6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5만 5천 원

문의 02-6339-1232

fri\_05



#### 전시 <시발(始發) : 서울>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 작가들이 참여한 이 전시는 각자의 인식 속의 서울을 평 면,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 들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서울이라는 도 시의 외부 시점과 내부 시점, 구성원들이 자신 의 자리를 지켜가며 바라보는 여러 관점과 태도 들에 주목하여 예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통찰하며 사회적 담론을 끌어낸다.

**일시** 1월 5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SAPCE 55

관람료 무료

문의 www.facebook.com/art.startpoint

sat\_06



#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MAP <별빛위로 Starlight Consolation>, 프로덕션 벗

**일시** 1월 6일(토) 오후 3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2층 박스씨어터

**관람료** 2만 원

문의 02-2676-4333



# 2017 서울연극센터 유망예술지원 NEWStage 선정작

### <레일을 따라 붉은 칸나의 바다로>

우리는 어느 땅 위에 비스듬히 서 있다. 어디론 가 낯선 이동을 하는 사람들. 정체(停滯)된 열차에서 벌려진 시간의 틈을 통해 스스로를 마주하고 정체(正體)를 찾는다. 땅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잡고 꿰서 땅에 묻는다. 땅 위에 세워진 경계의 중간에서 우리는 바다의 한복판에 떠 있는 칸나꽃, 중간에 낀 사람들이다.

**일시** ~1월 6일(토)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장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관람료전석 3만 원문의02-743-9336

weD\_10



#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MAP <캔 위 토크 어바웃 MAVO? / 직선은 원을 살해하였는가, 혹은 Z白호와 버터플라이 사이의 코스들>, 노연정

전시 1월 10일(수)~14일(일)

**어셈블리** ~1월 12일(토) 오후 2시~10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2층 박스씨어터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3



####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개관 30주년에 오페라극장에서 첫 번째로 공연되는 작품이다. 원작소설의 탁월한 문학적 토대 위에 유럽 뮤지컬 특유의 웅장함과 러시아 예술의 깊은 무게감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무대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LED 스크린을 통해 압도적인 비주얼로 무대 위에 19세기의 러시아를 구현했다.

일시 1월 10일(수)~2월 25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3시·8시, 토 오후 3시·7시 30분, 일 오후 2시·6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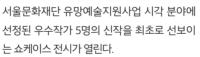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R석 14만원, OP석 13만원, S석 12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문의 02-541-6236



## 2017 서교예술실험센터 유망예술지원사업 선정작가 단체전



**일시** 1월 12일(금)~2월 4일(일) 오후 1시~8시(월·공휴일 휴관)

장소 탈영역우정국 지하, 1층, 2층

**관람료** 무료

**문의** 02-333-7218



### 2017 서울연극센터 유망예술지원 NEWStage 선정작 스트그의 꼬바

**<누구의 꽃밭>** 너는 나를 버릴 것인가?

너는 나를 버릴 것인가?

너는 나를 버릴 것인가?

**일시** 1월 12일(금)~20일(토)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장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관람료전석 3만 원문의02-743-9336



#### 아트앤아티스트 데이 <오페라 카니발>

창사 10주년을 맞은 아트앤아티스트가 전속 성 악가들과 세계 수준의 성악 프로젝트를 무대에 올린다. 세계적인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을 포함하여 베이스 손혜수, 테너 김현수, 바리톤 김주택과 정필립 등 7명의 남성 성악가들이 무 대에 오른다.

**일시** 1월 12일(금) 오후 8시

**장소** 롯데콘서트홀

관람료 R석 10만 원, S석 8만 원, A석 5만 원

**문의** 02-3443-9482~3



#### 전시 <W쇼--그래픽 디자이너 리스트>

'여성'과 '그래픽 디자인'에 관한 전시다. 지난 30 여 년간 중요한 성취를 거둔 여성 디자이너의 작업을 돌아보고, 성취에 비해 알려지지 않은 여성 디자이너의 활동을 재조명한다. 한국 그래픽 디자인계에 널리 퍼진 남성 중심적 시각과 서사에서 벗어나, 여성 디자이너의 존재와 활동을 인정하고 기념하며 기록하려는 노력의 시작이다.

**일시** ~1월 12일(금)

**장소** SeMA 창고

관람료 무료

문의 02-2124-8973

# sun\_14



#### 연극 <발렌타인 데이>

동시대 러시아를 대표하는 극작가 이반 비리파 예프의 대표작. 누구나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사 랑의 추억과 상처를 보듬는 이 작품은 인간의 삶 과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아낸다. 무대 위 3 명의 배우들은 시적인 대사로 각자가 숨겨온 사 랑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짧은 장면들은 콜라주 로 겹겹이 쌓인다.

**일시** ~1월 14일(일) 월 오후 3시, 수~금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화 공연 없음)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정면석 5만 5천 원, 측면석 3만 원,

3층석 1만 5천 원

문의 02-580-1300



#### 연극 <백석우화>

작품은 남았으나 북에서의 행적을 알 수 없었던 시인 백석의 삶을 찾아가는 기록극이다. 작창 이 자람, 작·편곡 권선욱, 서도소리 강효주, 정가 박 진희, 판소리 작창협력은 이지숙이 맡아 백석의 글을 입체적으로 무대에 살려낸다. 시인이자 극 작 연출가인 이윤택이 연출을 맡아 격동기를 살 아야 했던 백석의 고단한 삶과 예술혼을 무대 위 에 펼쳐낸다.

**일시** 1월 14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월 공연 없음)

장소30스튜디오관람료전석 3만 원문의02-763-1268

тие\_16



#### 넌버벌 코미디 <옹알스>

옹알스는 세계 각국 2,600개 팀이 참가한 에든 버러 페스티벌에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 웃음을 선사하고 돌아왔다. 마임과 저글링, 비트박스 등 비언어 장치를 통해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 는 글로벌 넌버벌 코미디다.

일시 1월 16일(화)~2월 4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R석 3만 5천 원, S석 2만 5천 원

문의 02-6383-1003

wed\_17



#### 제14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국내 최대 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가 '마음을 키워요!'라는 주제로 열린다. 2017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두각을 보인 수준 높은 아동극 12편을 선보인다.

**일시** 1월 17일(수)~28일(일)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소극장, 아이들극장 외 대학로 일대

관람료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745-5862~3, www.assitejkorea.org

sun\_21



# SeMA 벙커 역사갤러리 특별전

#### <암흑 물질>

역사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는 아카이브 자료들에 대한 비밀스러운 해석을 들려주며, 보이는 것과 기록된 것을 넘어 상상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작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영상 <암흑 물질>에서 '벙커'는 스펙터클도 노스탤지어도 아닌, 모호하고 알 수 없는 역사적 물질로 제시된다.

**일시** ~1월 21일(일)

장소 SeMA 벙커

관람료 무료

문의 02-2124-8941



####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포로수용소로 인민 군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은 무인도에 고 립되고, 살아남기 위해 신비의 여신 이야기를 만 들어내는데…. 높은 완성도와 짜임새 있는 드라 마, 서정적인 노래와 가사로 관객과 평단의 호평 을 받은 창작 뮤지컬이다. 탄탄한 연기력으로 무 장한 배우들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희 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일시** ~1월 21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2시·6시

(월 공연 없음, 1일 오후 2시 공연 있음)

**장소** 대학로 유니플렉스

관람료 R석 7만 7천 원, S석 6만 6천 원,

A석 5만 5천 원, 시야 제한석 3만 원

문의 1577-3363



#### 연극 <원맨쇼>

배우들이 조합원이 되어 공연제작에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공연을 위한 공연예술인 모임'의 창 단작. 박장렬작·연출의 <원맨쇼>는 치매에 걸린 엄마를 위해 연극을 하는 아들의 이야기다.

**일시** ~1월 21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4시·7시, 일 오후 4시(월 공연 없음)

**장소** 소극장 공유

**관람료** 3만원

문의 02-734-7744

# fri\_26

# 2017 서울연극센터 유망예술지원 NEWStage 선정작 <중립국>



**일시** 1월 26일(금)~2월 3일(토)

장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743-9336



# 전시 <동아시아의 호랑이 미술-한국·일본·중국>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한국, 일본, 중 국이 공동으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김홍도의 〈호랑이〉 등 우리나라의 작품 40점과, 에도시대 의 〈용호도〉 대형 병풍 3쌍 등 일본 30개 작품, 고 대 호랑이 장식 꺾창과 십이지도용 등 중국의 35 개작품이 출품됐다.

**일시** 1월 26일(금)~3월 18일(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무료

문의 02-2077-9045~7



#### 전시 <댄 플래빈, 위대한 빛>

롯데뮤지엄을 여는 첫 번째 전시다. 예술계의 금기를 깨고 댄 플래빈이 선택한 형광등은 규격화되고 산업화된 사회를 반영함과 동시에 지적이면서 신비로운 빛으로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댄 플래빈의 초기 작품 14점을한자리에 선보이는 이번 전시를 통해 빛이라는새로운 소재가 공간으로 확장되는 실험 과정을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시 1월 26일(금)~4월 8일(일) 월~목 오전 10시 30분~오후 8시, 금~일 오전 10시 30분~오후 8시 30분

장소 롯데뮤지엄

**관람료** 성인 1만 3천 원, 청소년 1만 원, 어린이 7천 원, 만 4세 미만 무료

문의 1544-7744



#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MAP <목욕합시다>, 몸소리말조아라

**일시** 1월 27일(토)~28일(일) 오후 8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1층 M30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3



#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MAP <미세인간>, 남상봉

**일시** 1월 27일(토)~28일(일) 오후 8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2층 박스씨어터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3



sun\_28



#### <돈 많은 백수가 되고싶다>展

출근하면서 퇴근을 생각하고, 개강과 동시에 방학만 기다린다. 어제도 쉬고 싶었고, 오늘도 쉬고 싶고, 내일도 쉬고 싶다. 알고 보니 백수가 적성이었던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은 우리 모두의 '웃픈'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서로를 위로하고자 하는 전시다.

일시 ~1월 28일(일) 평일 오전 11시~오후 8시 30 분, 주말·공휴일 오전 10시~오후 7시(1월 8, 15일 휴관)

**장소** 강남미술관

**관람료** 9천원

문의 070-4633-1845



####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가난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했던 화가 빈 센트 반 고흐. 그의 유일한 정신적 지주였던 동생 테오와 주고받은 900통의 편지가 노래가 되어 무대에 오른다. 고흐 형제가 들려주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일시** ~1월 28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4시·8시,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장소**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관람료 전석 5만 5천 원 문의 02-588-7708 TUE\_30



#### 연극 <네버 더 시너>

뮤지컬 <쓰릴 미>와 동일한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뮤지컬 <쓰릴 미>가 두 인물의 심리게임에 집중했다면, 이 연극은 사건에 대한 세밀한 묘사와 두 실존 인물들 간의 특별한 관계, 이들을 둘러싼 변호사와 검사의 팽팽한 신경전이 돋보인다. 유괴와 살인을 저지르는 두 주인공에 대한서사는 관객의 몰입감을 높인다.

일시 1월 30일(화)~4월 15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월 공연 없음)

장소 DCF대명문화공장

관람료 R석 5만 5천 원, S석 4만 5천 원

문의 02-744-4033

WED\_31



## 2017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MAP <팬텀서비스(vol.1)>, 돈선필

**일시** 1월 31일(수)~2월 1일(목) 오후 7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2층 박스씨어터

**관람료** 2만 원

문의 02-2676-4333



#### 뮤지컬 <킹키부츠>

폐업 위기에 처한 아버지의 구두공장을 물려받게 된 '찰리'는 우연히 만난 아름다운 남자 '롤라'에게 영감을 얻어 재기를 꿈꾼다. 신사화가 아닌 남자가 신는 하이힐 부츠 '킹키부츠'를 만들기로한 것. 편견을 벗고 빨간 힐을 신은 두 남자의 인생 역전이 뮤지컬 무대에서 펼쳐진다.

**일시** 1월 31일(수)~4월 1일(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30분,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30분

장소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관람료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문의 1588-5212

# 2018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예술치유 지원사업

서울형 학교예술교육 및 예술가교사(Teaching Artist) 서울시민예술대학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2018년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교육, 예술치유 작업을 할 파트너 예술가와 더 의미 있고 다 행복한 예술의 역할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파트너스데이는 예술의 교육적, 치유적 작업에 관심을 가진 예술가에게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을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궁금한 점을 사업담당자에게 1:1로 상담 하는 새로운 방식의 열린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며, 공통의 관심을 가진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입니다.

사업설명 자료집은 재단 홈페이지 및 행사장에 사전배포 되며, 행사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8년 1월 첫 주 뉴스레터 및 재단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일시: 2018.01.15.(월) <sup>오전</sup> 11시 - <sup>오후</sup> 5시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살림터 2층 CREA



#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unhwaplusseoul

좀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 독 자 엽 서

#### 조상희 님(서울시 마포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홍대 상상마당 1층에서 만났어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서촌 옥상화가' 김미경 작가의 '내 사랑 서촌'. 정말 좋아하는 동네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공감도 되고, 참 좋았어요. :) 좋은 작가님도 소개받을 수 있었던 페이지였어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이번 신춘문예 당선작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으면 좋겠어요.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한 가지 콘텐츠를 여러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오래오래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 

#### 편집 후기

리셋.

이규승 서울문화재단IT홍보팀장

안녕, 시마할.

**안현미** 서울문화재단 IT홍보팀 차장

숨가쁘게 달려온 한해,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시작, 두렵지만 설레는.

윤선희

#### 4 인용 식탁





计划扩

남산예술센터 하우스안내원들과 즐거운 社인용 식탁.

1. 조연이 2. 이다은 3. 윤새롬 4. 김은희 5. 김서희 6. 전윤수 7. 안혜숙 8. 김경진 9. 고건우 10. 정윤아 11. 윤소희 12. 김환 13. 이아림 14. 김지은 15. 주철환 대표 16. 류선주 하우스매니저 17. 박정선 18. 우연 극장장 19. 도재형 팀장 20. 김기연 21. 정주희 22 강정민 23. 윤다빈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 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

#### 주요 배포처

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동숭아 트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 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 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